

이름없는 이들이 다져가는 겨레사랑의 자리

# 우리말 우리얼

제 142 호 2025년 10월 10일

## ◀ 차례 ▶

|                               |    |
|-------------------------------|----|
| <건의문> 우리말을 살리고 빛낼 정책위원회를 만들라! | 2  |
| 2025년 우리말 지킴이와 해살꾼 발표문        | 4  |
| 2025년 우리말 지킴이                 | 7  |
| 2025년 우리말 해살꾼                 | 13 |
| 본받고 싶은 이오덕 선생님 조언년            | 18 |
| 울산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의 우리말 큰사전 권순채 | 30 |
| <겪은 이야기> 병상에서 지낸 나날 2 권순채     | 33 |
| <우리말 동시> 해바라기 1 이오덕           | 48 |
| <우리말 동시> 가을걷이 김리박             | 53 |
| <우리말 동시> 내가 안 쓰는 말 2 최종규      | 55 |
| 묘사 분류집 최영자, 최응구               | 60 |
| 동물과 나누는 마주이야기 증정광자            | 73 |
|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편집부        | 84 |
| 알립니다                          | 98 |

**편집 곳**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화: 010-4715-9190(이대로)

**주소** :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356번지 이오덕학교

**전자우편 주소**: 25duk@naver.com, idaero@hanmail.net

**누리집 주소** : 우리말 우리얼 <http://cafe.daum.net/malel>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 우리말을 살리고 빛낼 정책위원회를 만들라!

이오덕 선생은 1925년 11월 14일 경북 청송에서 태어났다. 올해는 이오덕 선생이 태어나신 100돌이 되는 해이고, 일본제국 식민지를 벗어나 80돌이 되는 해를 맞이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어 열 찬 나라를 만들 정책위원회를 제안한다.

이오덕 선생은 참된 우리말이 학자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시골 할머니와 어린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누구나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글을 쓸 때에 우리말이 살고 열 찬 나라가 된다고 했다.

일본제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여든 해가 되었는데도 일본 한자말로 된 교육용어, 행정용어, 학술용어, 전문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정부기관까지 영어를 마구 섞어서 쓰면서 우리 말글살이를 어지럽히고 있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열빠진 학자와 언론인은 “학생들이 일본 한자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는 우리 말글살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정책 반향을 가로막는 일이고 나라 망칠 일이다.

우리는 이오덕 선생이 “이 땅의 민주주의는 남의 말과 남의 글로써 창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써 창조하고 우리말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면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을 만든 뜻과 꿈을 되살려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이재명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 말 다듬기를 하자.** 일제 식민지 국민교육으로 길든 일본 행정용어, 교육 용어, 학술용어, 전문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일본말투를 버리자.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한자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못난 일이다.

**2. 영어 마구 쓰지 말자.** 요즘 누리통신 시대를 맞아해 그 영어로 된 통신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 그 말을 알아보지 못해 그 낱말 공부에 힘과 시간을 허비한다. ‘AI’라고 쓰지 말고 ‘인공지능’이라고 쓰거나 ‘틀슬기’처럼 새 낱말을 만들어 쓰자.

**3. 우리말로 쉬운 말을 만들고 이름도 짓자.** 중국이나 일본은 서양말을 제 나라말글로 바꾸어 적는데 우리는 그 외국말을 그대로 쓴다. 그리고 새 낱말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줄도 모른다. 우리말로 새 낱말을 만들고 이름을 지으면 비웃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진 사대주의와 식민지 종살이 근성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이 일은 세종과 주시경, 이오덕 선생의 자주정신을 살려서 나라말글을 바르게 쓰고 빛내어 우리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로서 돈과 힘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애쓰면 될 일이다.

또한 자주독립국과 자주문화강국이 되고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는 첫걸음이다. 더욱이 우리식 인공지능 시대를 열려면 쉬운 우리말로 된 정보와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이 일이 더욱 중요하다. 새 정부가 우리 건의를 듣고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라며 건의한다.

2025년 광복 80돌이 되는 해 10월 7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들 아뢰

## 2025년 우리말 지킴이와 헤살꾼 발표문

깨끗한 말글살이를 할 때에 우리말과 정신도 바로 서고 튼튼해져서 자주독립국이 된다. 우리 모임은 우리말을 살려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27년 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있다. 해마다 한글날에 우리말을 살리고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 분이나 모임을 우리말 지킴이, 그렇지 않은 분이나 모임을 우리말 헤살꾼으로 뽑아 발표하고 있다. 확실히 지난날보다 한자는 덜 쓰지만 아직도 일본 식민지 국민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을 교육, 행정, 학술 분야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런데다가 중국 한문을 섞기던 버릇이 미국말 섞기기로 바뀌어 우리 말글살이가 몹시 어지럽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한 영어 섞기기는 점점 심해져서 이제 우리말을 죽이고 나라까지 망치게 생겼다. 거리에서 한글간판이 사라지고 영어간판이 자꾸 더 늘어나며 아파트 이름, 상품 이름, 회사 이름들을 영어로 짓더니 이제 정부 직제 이름까지 영어로 짓고 있다. 일본 식민지 때 일본이 강제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게 한 것을 비난하면서 오늘날에는 스스로 미국식 창씨개명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도 드물다.

끝끝내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 부처 이름에 ‘벤처’란 영어를 넣으니 공공기관들도 영어를 마구 섞어서 썼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디어, 에너지, 데이터”란 영어가 들어간 부처를 3개나 늘렸다. 이러니 앞으로 영어 마구 쓰기는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 직제 이름을 넣는 것은 통일 신라 경덕왕 때처럼 사람 이름은 말할 것이 없고 땅 이름, 정부 직제 이름까지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사대주의가 깊숙하게 뿌리내린 못된 짓을 되풀이하는 꼴이다.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에 우리 글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중국 한자를 썼지만 그때도 우리말을 적기 편리하게 이두, 구결, 향찰식으로 쓰려고 힘들었다. 오늘날은 1945년 광복 뒤부터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 적어서 글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가 빨리 발전해 외국인들이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칭찬한다. 또 우리 문화가 꽃피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나라 밖에 뻗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얼빠진 사람들이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 광화문에 걸린 한글헌관을 떼어냈다. 이번에는 영어를 섞기면서 우리 말글살이가 더 혼란스러워졌고 일어나던 나라 기운이 식고 국민은 좌우로 갈려서 밤낮 싸움에 가까운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 모두 오랫동안 우리 글자가 없을 때 중국 한자를 섞기면서 뿌리 내린 사대주의와 일본 식민지 국민교육으로 길든 종살이 근성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글을 살리고 빛내어 자주정신을 드높이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려고 올해도 우리말 지킴이와 해살꾼을 다음과 같이 뽑아 발표한다.

2025년 579돌 한글날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들

고영희 김경희 노명환 박문희 이대로 이정우 이림

## 2025년 우리말 지킴이 다섯

우리말 으뜸 지킴이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우리말 지킴이 : 맨발걷기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신향식 기자

우리말 지킴이 :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혁재 박사

우리말 지킴이 : 세계에 한글을 알리는 한글 전도사 한창환 님

우리말 지킴이 : 아프리카에 한국어 알리는 신미라 교수

## 2025년 우리말 해살꾼 다섯

우리말 으뜸 해살꾼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우리말 해살꾼 : 부산시(시장 박형준)

우리말 해살꾼 : 점점 늘어나는 외국어 간판과 이름

우리말 해살꾼 : 일본 한자말 고집하는 사람들

우리말 해살꾼 : 중국 한자 섞어 쓰자는 사람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000년 역사 이래 제대로 된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 적는 말글살이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글자로 교과서를 만들고 공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했습니다.

한글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살아있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했더라면 우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뒤 기독교인들이 한글을 쓰는 것이 좋다고 성경을 한글로 쓰기 시작할 때라도 살아있는 우리말을 썼더라면 일본 식민지가 안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말 글을 살려서 자주독립국이 되자고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따로 2025년 우리말 지킴이와 해살꾼으로 뽑은 분들 공적 내용을 알려드리니 널리 보도해 우리말이 살고 나라가 빛날 길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25년 우리말 지킴이

**우리말 으뜸 지킴이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출범 때부터 “한뼘마을 다솜동”처럼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짓고 “가재울길, 고운길”처럼 길 이름도 옛날부터 쓰던 토박이말을 살려서 지었다. 따라서 학교와 아파트 이름도 우리말로 지었다. 이는 일본 강점기 때 우리말로 된 땅이름을 일본식 한자말로 쓰던 일본 식민지 찌꺼기를 쓸어내고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고 세종대왕의 자주정신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로 만들 것을 선언하고 한글날에 “세종



▲ 세종시 누리집 알립글(왼쪽)과 세종시 한글날 세종한글잔치 알립글(오른쪽).

한글축전, 세종과학집현전”처럼 한글 잔치를 꾸준히 열면서 시민과 함께 우리 말과 한글, 세종정신을 살리고 드높여서 튼튼한 자주독립국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 한글날을 앞두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한글축제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세종시가 우리말 사용 문화를 전국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쉬운 말·아름다운 말을 쓰는 데 힘쓰고, 이를 성과로 축제에서 알림으로써 한글의 국제화와 상용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글과 세종대왕이 태어난 서울시는 한글이나 세종정신을 빛내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참 잘하는 일이다. 한글날에 아무런 행사도 안 하며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한글을 짓밟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른 지방단체장들도 본받기 바라면서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뽑아 고마움을 표하고 칭찬한다.

### 우리말 지킴이 : 맨발걷기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신향식 기자

맨발걷기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은 2025년 6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자연치유일보 신향식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외국말이 들어간 합성어인 ‘맨발러’라는 말을 ‘맨발벗’이라고 순우리말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알렸다. 서울시가 외국어가 들어간 ‘서울런’이라는 이상한 합성어를 만들어 퍼트리는 것이 마땅치 않았는데 아주 잘하는 일이고, 더욱이 신향식 기자는 대학생 때부터 국어운동학생회 활동을 시작으로 수십 년째 우리말글을 살리고 빛내려고 애쓰는 분이였다. 이번에 이 일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본받기 바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맨발걷기운동본



부 박동창 회장과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려고 애쓰는 신향식 기사를 칭찬하고 우리말 지킴이로 뽑았다.



▲ ‘맨발러’라는 말 대신 ‘맨발벗’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온 자연치유일보 누리집. <https://www.swritingwork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

## 우리말 지킴이 :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혁재 박사

손혁재 박사는 모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2005년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하자는 운동을 할 때에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렇게 한글을 살리고 빛내는 일에 힘썼고 그 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손혁재 박사처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말과 겨레 얼도 살고 더 좋은 나라가 된다고 본다. 온 국민이 본받기를 바라며 우리 겨레모임에서 우리말 지킴이로 뽑아 손혁재 박사에게 그 고마움을 알리고 칭찬한다. 이런 분은 나라와 겨레가 잘 될 길을 이는 진짜 사회 지도자다.



순학제  
8월 24일 금  
송기로운말글살이20250629

아주 오랜만에 동네 마트에 갔는데 참참 우리 말을 어떻게 말하셔요.  
건해산, 이만말이 안게 생겼을가요. 일린해산물이란 뜻이겠지요?  
병합은 잘 보이지 않게 작은 글씨로 표정제리라 하고 건관부터 해를 불려까지 다 영어  
US beef AU's beef라고 해야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라 후추산 쇠고기인 줄 아는게 보지요?  
출판속건! 닭을 빨아들이고 빨리 마른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이없네요.  
익해서 드세요라고 하면 삶거나 찌지 먹을까 봐 '후숙'이라고 했나요?  
워터스팀페스타? 무슨 말인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름 물놀이용품이라고 쓰면 안 팔리나요?  
창발 매들 어릴까요.



▲ 2005년 한글날 국경일 제정운동을 할 때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순학제 박사 모습과 최근 일쫓(페이스북)에 올린 우리말 살리는 글.

## 우리말 지킴이 : 세계에 한글을 알리는 한글 전도사 한창환 님

한글은 영문 로마자보다 훌륭한 세계 으뜸 글자다. 그런데 한글이 태어나고 500년 동안 우리는 한글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한글이 그렇게 훌륭한 글자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한자를 쓰는 것이 바르고 좋은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조선어학회 선열들이 일제 때에 목숨 바치고 한글을 갈고닦고 광복 뒤부터 한글로 교과서도 만들고 공문서를 쓰면서 우리말글로 말글살이를 시작했다. 반세기 만에 온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빨리 발전해 선진국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우리 문화가 꽃피어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다.

요즘은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몰려들고 있다. 이때 지구학당 대표이자 한글 서예가이자 평화로운연구소 소장으로 남북평화운동을 하는 한창환 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한글 알리기를 애쓰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54개국을 돌면서 13개월 동안 “홍익인간 · 평화사랑, 한글 철학” 강연도 하고 한글 붓글씨로 이름을 써주면서 한글을 사랑하는 여정에 올라 활동했다. 잘하는 일이고 고마운 일이기에 우리말 지킴이로 뽑아 칭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알린다.



▲ 몽골대학교에서 한글철학 강연을 한 뒤에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함께 한 한창환 서예가 모습.

## 우리말 지킴이 : 아프리카에 한국어와 문화 알리는 신미라 교수

우리나라와 아주 먼 곳에서도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때마침 신미라 교수는 국제교류재단 “해외 한글, 한국학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파견되었다. 2021년부터 5년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공화국 펠릭스우푸에부아니 대학 한국학 대학원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신미라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인 한글을 온 인류가 편히 쓰면 좋겠다는 세종정신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 2025년 9월 25일에는 그 나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 신 교수는 “이 나라는 불어권 나라로

서 붙여를 배우고 주로 쓰는데 한글로 자신들 고유어를 표기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한글로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아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있어 고맙고 자랑스러워 더 힘을 내라고 우리말 지킴이로 뽑아 칭찬한다.



▲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한국학 대학원 신미라 주임교수(왼쪽),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 학생들과 한국문화 행사를 하는 모습(오른쪽).



▲ 서울시 누리집에 있는 알림글인데 영어를 합성해서 이상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가득해치? ‘했지’라는 말을 비틀어 서울시 상징물인 해치를 넣었고, 이웃데이? 이웃이라는 우리말과 ‘데이’라는 영어를 합했다. 서울런? 서울이라는 우리말과 ‘런’이라는 영어를 합성했다.

## 2025년 우리말 해살꾼

### 우리말 으뜸 해살꾼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제1도시이고 한글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한글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빛내고 기릴 뿐만 아니라 국어기본법을 더 잘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반대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여러 번이나 우리말 해살꾼으로 뽑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말글살이를 어지럽히고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다. 어찌다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법을 어기고 나라말글을 짓밟는 모습이다. 지난 박원순 시장 때에는 한글날에 경축 행사도 하고 한글과 세종정신을 드높이



▲ 서울시 말글살이는 개판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하는데도 그대로다. 오히려 우리말 해살꾼으로 뽑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려고 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번에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뽑힌 세종시를 보고 우리말글을 살리고 국어기본법도 잘 지키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우리말 으뜸 해살꾼으로 뽑았다.

### 우리말 해살꾼 : 부산시(시장 박형준)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시(시장 박형준)도 2년 전에 부산시를 영어상용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말 으뜸 해살꾼으로 뽑아 그 잘못을 알려준 일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말과 한글을 살리고 빛내기보다 영어 섞기기에 바쁘다.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가 그러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도 그렇게 우리말글을 업신여기고 외국말을 더 섞기고 쓰는 것이 팬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 부산시장은 제정신이 든 분이 와서 세종시나 울산시처럼 우리말과 한글을 살리고 빛내주어 우리말 지킴이로 뽑을 수 있게 해주길 바라면서 올해도 우리말 해살꾼으로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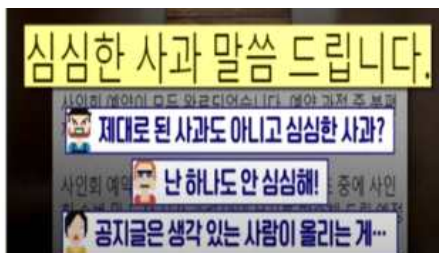


▲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 알릴글 모습.



## 우리말 해살꾼 : 광복 80년이 지났는데 일본 한자말 고집하는 사람들

광복 뒤에는 정부와 국민들이 일제가 못 쓰게 한 우리말을 살려서 썼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일본 식민지 국민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보다 우리말을 살려서 쓰려고 했다. 그래서 교과서 이름도 “샘본, 한글 첫걸음”처럼 지었고 자연 책에서도 “어깨뼈, 흰핏돌, 쭉돌”처럼 우리말로 썼다. 그것을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자들이 “건골, 백혈구, 화강암”같은 일본 한자말로 바꾸고 이 한자말을 한자로 써야 이해하기 쉽다고 잊을만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오히려 빨리 왜말을 버리고 쉬운 우리말을 살려서 써야 하고, 영어 편식 교육이 국어와 다른 교육을 망치고 책을 읽는 시간을 빼는 것을 따져야 한다.



▲ 기사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경기일보)과 요즘 문해력이 떨어진다느 보도글.

## 우리말 해살꾼 : 점점 늘어나는 외국어 간판과 이름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간판은 한글로 쓰게 되어있다. 그런데 국민들

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이름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 아니 보면서도 모른 체한다. 그러니 전에는 서울 명동 같은 곳에서만 영어간판이 많았는데 이제 지방 도시까지 영어간판이 나날이 늘어나고 우리 한글간판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 이름이나 회사 이름은 거의 모두 외국어로 짓고 있다. 일본 식민지 때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게 한 것은 타한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스스로 제 나라 말글을 버리고 미국식 영문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인데도 따지고 말리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어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만 나온다.



▲ 언론에 보도된 점점 늘어나는 영어간판 문제를 따지는 움직임(영상)과 찍그림(사진)들.

우리말 해살꾼 : 한자를 쓰는 게 전통이라는 사람들



요즘 신문이 한글전용 가로쓰기를 하면서 기사 제목에 “산업장관 추석 연휴 중 美 급파”라고 쓴 것이나 “北 김정은 대남 위협에 대화 요구”처럼 토막 한문 한 글자를 한자로 쓴다. 우리 국민은 똑똑해서 ‘美’는 ‘미국’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한자로 쓴 것이고, ‘北’은 ‘북한’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한자로 쓴 것임을 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미국, 북한”이라고 그대로 쓰면 좋다. 괜히 낱말을 줄이려고 한자를 섞어서 쓰는 것은 우리말글 독립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말버릇은 뿌리 깊은 언어 사대주의와 식민지 노예근성에서 비롯된 글쓰기로 언문일치 시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버릇으로서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자 몇 자를 쓰는 게 어떠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자를 배우고 쓰는데 들이는 시간과 국력 낭비가 많다. 또 한글을 쓰면 읽는 장점이 사라진다. 말글은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고 도구다. 수단과 도구는 편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한글만으로 말글살이를 하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모든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한자를 함께 쓰는 일본은 중학교, 중국은 고등학교를 마쳐야 하기에 중국과 일본보다 일찍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국민 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경쟁력이 강해진다. 이런 버릇은 “K-한복”처럼 영문 첫 글자를 섞어 쓰는 버릇을 낳고 있다. 영어로 ‘K-culture’라고 쓸 때는 몰라도 한글로 쓸 때는 영문을 쓰지 말고 한글로 써야 한다.

## 美 러트닉 만난 뒤… 대통령실, 연휴 긴급 관세 회의

한국인 구금했던 美 조지아에 닥친 불행… 대량 실업 이어졌다

재건축 하세월에… 녹지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노후아파트들

▲ 신문이 기사 제목에 美라는 한자를 썼는데 아름답다는 한자 뜻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 본받고 싶은 이오덕 선생님

조언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간사

어느 선생님이 나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선뜻 대답하기 앞서 ‘존경한다는 말은 본받고 싶다는 뜻이 아닌가? 그 사람의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 걷고 싶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 사람들은 나라 경계가 모호해졌으니 외국 사람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고 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외국에 살아보니 나와 같은 말을 쓰는 한겨레 사람들을 더 가깝게 두고 의지한다. 남의 나라에서 겪는 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고 느낀다. 그래서 내 나라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워하게 된다. 이런 내가 따를 수 있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아끼신 분이 누구인가? 잠시 고민했다.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김구 선생남도 이오덕 선생님도 일신의 안위를 희생하여 분열하는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셨다. 그것이 한 분은 자주독립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말 살리기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오덕 선생님이 하신 일들이 떠올랐기에 이오덕 선생님을 본받으며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어려서부터 책을 즐겨 읽던 나는 어린 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왜 글로 써 있는 동화책을 읽으면 말로 할 때 보다 자연스럽게 못할까?’ 모든 글의 맺음이 ‘하다’ ‘있다’로 딱딱해서 내가 다시 “했던 거야” “있었대” 이렇게 풀어 읽어줘야 했던 것이다. 아무도 왜 글과 말이 다른지, 글로 쓰면 아이들에게 읽어주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 의문은 이오덕 선생님의 《울면서 하는 숙제》를 읽었을 때서야 “와,

이 책은 희한하다. 말로 안 풀어줘도 술술 읽히고 읽어줄 수도 있네!” 하고 알았다. 이오덕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쓴 동화나 수필은 입말로 구분해서 펴내셨다. 이게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태까지는 어린 아이로서 배려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나는 도로 표지판에 쓰인 한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한글 쓰기 연습하면 한자도 그림 그리듯 같이 썼다고 한다. 지금 도로 표지판은 한글 밑에 영어로 써 있던데 만약 그때 영어였다면 나는 멋모르고 영어를 따라 썼을지 모른다. 그것을 본 부모님은 내가 한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가르쳐 주었다. 동생들은 모르는데 나만 암호문같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어서 그런지 한자를 좋아했다. 한자를 알게 되면 어떤 어려운 말도 무슨 뜻으로 썼을지 짐작하기 쉬워서 책 읽는데 막힘이 없어진다. 잘 모르면 사전을 찾아 뜻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 대충 넘어가는 버릇이 이때부터 배어들기 시작한 것 같다. 사실 내가 공부할 때 펴는 사전은 영어 사전, 한자 사전뿐이었다. 영어 사전은 영어 학원에서 준 영어로 풀이한 원문 사전이었는데, 그 풀이말을 번역해서 읽으면 낱말의 유래부터 뜻까지 참 알기 쉬웠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도 이런 좋은 사전이 나와야 하는데 어려운 말의 뜻을 찾으려고 보면 또 다른 어려운 말로 빙빙 돌 뿐이다. 그러니 더욱 내가 한자 사전으로 한자를 풀이해서 그 말 뜻을 알아내는 것이 편했다. 만약 그때라도 이오덕 선생님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받아들여 책에 어려운 말이 없었다면 나는 한자를 알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굳이 한자를 왜 배웠나 싶기도 한 것이 한자를 풀해보면 그 끝은 결국 쉬운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제야 나는 고작 한자 좀 안다고 자랑했던 나를 남들이 얼마나 꼴 보기 싫었을지 한자 배운다고 괜한 시간을 쏟은 것까지 후회한다.

한자를 아니까 어려운 말이 없다고 자부하는 나도 읽고 넘어갔다가 다시 되짚어 와서 두서너 번 더 읽어야 했던 알קות은 책들이 생각났다. 그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읽으라고 추천하는 세계명작 도서였다. 맨날 앉아 공부하는 책상 책

꽃이에는 두껍고 무거운 양장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아주 눈에 거슬렸다. 사촌오빠한테서 물려받은 한자말투성이 세계명작 도서전집인데 어려워 봤자 다 싫어 억지로 쥐고 읽었다. 중간중간 낱말은 번체 한자로 써 있고, 어설픈 번역말투와 어떤 외래말 풀이도 없이 친절하지 못한 그 책을 사촌오빠도 사촌 언니도 읽었을 텐데 나라고 못 볼까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읽기는 다 읽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명작인가 어른들이란 본래 이렇게 난해한 글을 좋아하구나 싶었다. 재미없게 읽은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자책했다.

그런데 이오덕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글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글쓴이(웁진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보니 이오덕 선생님이 쓴 글은 읽다가 못 알아듣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읽고 나서 그 뜻이 좋아 기억하고 싶어서 또 읽게 되는 경우뿐이다. 《울면서 하는 숙제》는 내가 처음으로 읽은 이오덕 선생님의 책이다. 교과서에도 이오덕 선생님 동화나 시가 실려서 분명 읽었을 텐데 교과서에 실린 글은 글쓴이 이름을 눈여겨보지 않아 몰랐다. 《울면서 하는 숙제》라는 책 제목부터 숙제가 뭐 그렇게 힘들다고 울면서 할까 싶어 내용이 궁금했다. 책 속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사철에 따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여러 가지 주제의 수필이 담겨 있었다. 입학식, 봄방학, 운동회, 어린이날, 여름방학, 겨울방학, 졸업식, 싸움, 시험, 글쓰기, 책 읽기…… 우리나라 아이들이라면 다달이 꼭 겪는 이야기였다. 곳곳에 농촌 아이, 몸이 아픈 사람, 어린 아기,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도 빼놓지 않으셨다.

나는 다른 글들은 제쳐두고 가장 먼저 책 제목의 수필을 읽었다. 숙제를 도와달라고 칭얼대는 아이에게 이오덕 선생님은 그런 숙제 안 해가도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보면 나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 숙제하다가 손에 쥐가 나 아파했던 것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는 손아귀 힘 조절도 잘 못해서 연필 쥐는 손가락에 금방 굳은살이 생겼다. 손가락이 아파서 중지에만 연필을 대지 않고 검지,

약지까지 옮겨가며 썼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터인데 어차피 내가 안 하면 안 끝나는 일이라고 단념한 것 같다. 반듯반듯 쓰던 글씨도 서둘러 쓰려다 보니까 점점 뭉그러졌다. 밤 10시쯤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학원 숙제, 학교 숙제하느라 밤 12시까지 못 자도 어쩔 수 없다 싶었다. 너무 피곤한 날이면 가끔 ‘선생님들은 우리가 숙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은 알까? 알면서 이러는 것은 참 알뜰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잠자는 시간조차 빼앗기는 숙제는 아무리 선생님의 명령이라도 해가지 않을 권리가 당당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귀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선생님한테 별 받고 꾸중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무서워했던 것일까? 약속을 잘 지켜야 바른 아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에서야 강요와 약속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숙제가 바로 방학 숙제였는데, 방학에도 학원 다니느라 바쁜 나머지 무언가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대신 페트병 로봇이나 씨앗도감을 만들어 주었고 그걸로 상까지 받았다.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상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 복도에 전시해둔 친구들 작품도 보면 모두 어머니가 해준 것들이었다. 상도 여러 이름으로 자주 받다 보니 상이란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비슷한 글귀가 담긴 흔한 종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교장실에 불려나가 무슨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상 건네주는 일을 전교생이 보도록 영상까지 찍는데 강당에서 받지 않아 찍는 것인가? 내 모습이 남들에게 아니꼽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었다. 그때 내가 상 받는 모습을 아침초회 방송으로 지켜본 여동생이 집에 오자마자 “상 받는 언니 봤어?” 물어보는 어머니에게 질투하듯이 “TV에 나오는 언니가 창피했다”고 말했다. 그런 여동생을 보면서 친구들 사이도 내가 찍힌 사진이 신문에 나왔다는 이유로 어색해졌던 것이 떠올랐다. 이제 칠판에 분필을 쓰지 않고 하

얀 액체가 나오는 마카를 쓰게 되었다는 내용의 별것도 아닌 기사였다. 분필가루 날리지 않아 좋다는 설명 위에 내가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는 사진이 실렸다. 분명 반장이 먼저 나와서 사진 구도를 잡고 찍었는데 정작 신문에는 내가 나왔다고 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이라니 혈육 사이도 경쟁으로 가르는구나 싶었다. 이 일은 내가 예민한 것인지 헛갈리기도 한다. 그래도 가끔 어머니가 사촌과 나를 비교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잘 하라는 압박으로 들렸는데 동생도 비슷한 기분이 들지 않았던가 싶다.

이오덕 선생님은 어른이 해오길 은근히 바라는 그런 숙제는 안 해가도 좋고 아이를 타이르면서 잘못된 일에 꼬박꼬박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신 것 같다. 나는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니까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모두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였으니 숙제도 나를 위해 내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어른들의 말은 의심하지 않고 무작정 해온 내가 한심했다. 어쩐지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오는 아이들은 이미 공부 성적에서 우수하니 귀찮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될 아이들로 분류하고, 숙제 안 해오는 아이들은 공부도 집중 관리해야 하는 아이들로 보았던 것 같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그 누가 하지 못하게 가로막아도, 모든 사람이 하기를 싫어해도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세요. 거짓되고 그릇된 일이면 아무리 강요받더라도, 모든 사람이 예사로 하더라도 딱 잘라 거절하세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요, 영웅입니다.”

이런 말을 해준 어른은 이오덕 선생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알게 된 이상 앞으로는 강요받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오덕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직접 찾아보기로 다짐했다. 이오덕학교에 선생님이 오신 분들은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 가르쳐야 하니까 무엇보다 가르쳐야 할지 어려웠다. 나는 막연히 이 학교에 있는 책을 다 읽으면 이오덕 선생님 같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잡히는 대로 읽었다. 예전 습관대로 속독하니 그저 읽고 내용을 아는 것뿐인 책들이 생겼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책들은 일기 쓸 때 독후감으로 남기려고 노력했다. 글을 쓰는 것은 상을 받을 때나 쓰던 것이었는데 차츰 적응하게 되었다. 어떤 책보다도 이오덕 선생님 책들은 빠뜨리지 않고 읽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오덕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 지금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대신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지 누가 베스트셀러라고 권해준 책 말고도 이제는 내가 좋은 책을 골라봐야겠다 싶었다.

이오덕 선생님을 아니까 돌아가시고 없는 권정생, 전우익, 성내운, 미승우, 이원수, 권태웅 선생님…… 어린이문학과 우리말우리열과 글쓰기 회원분들을 모두 차례로 알게 되었다. 회원분들은 책으로 알게 된 것보다 값진 인연들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신 운영태 교수님도 곁에서 나를 다 지켜보셨을 것이다. 내게 무슨 좋은 일, 나쁜 일들 이정우 선생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아시고 걱정해주시던 분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지만 앓았더라도 좋았을 텐데 만나 뵈면 그동안 밀린 전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렇게 늘 새로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오덕학교에 와서 배움의 부족함을 느낄 새 없었다. 학교가 열고 닫은 20년 동안 나처럼 제도교육에 확신을 느끼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그분들은 모두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서 되겠다 싶어 고민해 본 사람들이었다. 자신은 이오덕 선생님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끝내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떠났다.

지금까지 나는 햇수로 4년 동안 이오덕 선생님 책을 모두 훑어보면서 우리

말에 관한 글만 모았다. 책은 묶여 있으니 어렵지 않게 다 보았는데, 이오덕 선생님이 따로 써두신 공책들과 잡지들까지 살펴봐야 했다. 더구나 선생님이 모아둔 잡지는 이사 다니면서 없어졌는지 비어있는 게 많아 어디선가 구해야 하는데 모든 잡지사가 문을 닫았다. 먼 외국에서 이오덕 선생님의 우리말 사전을 손봐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올해 나왔으면 했는데 1,800쪽짜리 사전은 자본이 많이 들었다. 제본소에 견적을 내어보니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출판사의 의향을 물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기간에 나는 또 흠어진 잡지를 찾아 모으고 있다. 살아생전 이오덕 선생님이 펴내고 싶어 하셨던 사전 일을 공교로이 내가 하게 될 줄 몰랐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우리말은 사라지는 이런 답답한 현실에 다시 이오덕 선생님 같은 분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 시대 흐름대로 어린이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참 좋은 우리말은 왜 아직도 외면당하는지 우리말 살리는 일은 아득히 멀다. 이오덕 선생님이 정리해 둔 자료를 보면 아주 꼼꼼히 공책 옆에 가름표로 표시를 해두었다. 어떤 자료는 종이 하나하나 묶어 모아두었는데 예시까지 손으로 옮겨 써두었다. 신문은 오려 붙이기도 했는데 빛바래고 쪼글쪼글한 신문을 더듬어 살필 때마다 이것을 붙이고 계셨을 이오덕 선생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오덕 선생님이 말아내던 잡지들을 펴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다. 일을 전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펴내면서 알아가는 부족한 솜씨라서 부끄럽다. 꼼꼼하시던 이오덕 선생님의 일을 어설프고 덤벙대는 내가 말아도 될까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회원분들이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기특하게 봐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셔서 기운이 난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 일을 맡으니까 어떻게든 하고 한 해 한 해가 빠르게 흘렀다. 방 안에서 이번에는 어떤 글을 신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며 읽고 모으고 옮기는데 그 일들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 책을 억지로 읽다가 졸았던 일이 떠올랐다. 물론 훌륭한 책들도 있었을 테지만 정말 읽고 싶은 책과



는 받아들이는 속도부터 다르다. 이오덕 선생님의 손때 묻은 공책과 자료를 조심히 보면서 나는 게을러서 선생님 발끝이라도 따라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이오덕 선생님 책을 읽으면 여러 이야기가 한 가지 주제로 이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한다. 선생님은 어떻게 사소한 일도 지나치지 않고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궁금했다. 그 깊은 생각을 쉬운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읽는 이들은 공감하게 된다. 일기를 쓰듯이 꾸미지 않은 글인데 느낄 거리가 많아서 어떤 형식의 글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렵다. 나는 선생님이 쓴 평론집을 보았을 때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글과 이오덕 선생님의 글쓰기가 다르구나 느꼈다. 그때부터 일기 쓰는 버릇을 들어서 그 일기에는 무엇도 숨기지 않고 쓰는 것에만 치중했다. 그렇게 꼼꼼한 기록을 남기는 것부터 이오덕 선생님이 가르친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또 선생님이 읽었던 책을 보면 중요하거나 잘못된 곳은 밑줄로 표시하고 한 귀퉁이에다가 느낀 점도 써두셨다. 그런 자투리 글을 찾아 읽기가 재미있었다. 이런 글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구나, 열쇠가 되는 말로 써둔 낱말들이 그 글과 어울렸다. 어쩌면 글의 핵심을 이렇게 잘 잡으실 수 있을까 놀라웠다. 옛날부터 나는 박물관에 가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문화재 이름과 설명을 빼곡하게 적어오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다녀오면 수첩 하나가 쌓인 만큼 배우는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면 유물 한 점이라도 더 자세히 살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었던 듯하다. 이번에는 이오덕 선생님처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책 읽고 나면 한두 줄이라도 남기고,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느낀 세세한 감정까지 적어봤다. 그러나 아직 내가 읽은 책이 적다 보니 그 글이 이오덕 선생님처럼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가볍게 어떤 내용인지 요약한 댓글을 남기는 정도였다. 그래도 노력하던 글쓰기는 충격스러운 말을 듣고 좌절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만난 어느 선생님이 내 글은 내용이 늘어진다

면서 글자 한 자 한 자에 뜻을 담으라고 했다. 처음 듣는 평가라서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 그제야 꼼꼼하게만 쓴다고 좋은 글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 글은 뜻 없이 지루할 뿐이구나 싶었다. 그다음부터 무슨 감동이 와닿지 않는데 억지로 쓰려니까 반성문을 쓰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언제나 글의 마무리를 무언가 깨달았다고 쓰려니까 모든 글이 비슷해져서 어려웠다. 뜻을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기처럼 내가 겪은 일만 주저리주저리 쓰는 데도 한계였다. 그러면서 글 쓰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고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느끼면서 점점 글쓰기를 망설이게 된다.

시와 마찬가지로 글 쓸 때도 감동을 담자는 욕심이 생기면서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른 첫머리와 끝맺음을 공부하고 싶었다. 다시 한 번 이오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 《우리 문장 쓰기》를 읽으면서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춰 보고자 했다. 이오덕 선생님의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했던 고민도 눈에 띄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우리말로 풀어진 글은 쉽게 읽히니까 가볍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오덕 선생님이 우리말로 쓴 글을 아이도 읽을 수 있다고 아이만 대상으로 두고 쓴 글이 아닌데도 낮잡아 보았다. 이오덕 선생님의 글은 아이가 읽으면 아이 수준에서 읽히지만 어른이 읽으면 어른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모든 나이를 어우르는 그런 글 종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또 중국 선생님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일부러 어려운 한자, 성구, 한시를 알든 모르든 글에 섞어 쓰는데 나는 중국 글도 쉬운 입말로만 썼던 것이다. 또 한자는 뜻을 함축한 글자이다 보니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이미 뜻이 여러 번 통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일본에서 온 선생님은 나한테 한 분야를 연구하더라도 폭넓게 다른 분야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이오덕 선생님 문학이 아닌 다른 방면에 무지한 것은 사실이라 그 점도 고쳐야 하겠다. 이오덕 선생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글의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 사실 나는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실천했지 ‘말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다.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남들에게 보여도 되는지 망설였던 것이다. 이오덕 선생님의 제자들 글처럼 솔직하지 못하고 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혹시 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 남들에게 무슨 비판을 들을까 무서워서 숨기는 것도 얼마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오덕 선생님은 슬기롭게 비판하는 눈을 타고 나신 것 같았다. 비단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글까지도 어려운 말, 잘못된 생각, 지나친 행동을 가감 없이 지적하여 바로잡아 주었다. 요즘 사람들은 비판하는 눈을 가졌다고 하면 사회에 부적응, 부적격,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있어야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옳으면 옳다고 가려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오덕 선생님의 눈과 머릿속에 있는 슬기를 다 배우고 싶은데, 돌아가시고 없으니 남아있는 책이라도 모조리 읽겠다는 욕심을 품고 있다. 진정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분이 생긴 것이다. 이오덕 선생님을 알기 전, 제도교육을 받을 때는 왜 배워야 하는지 알고 싶어도 그것은 공부에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지나가야 했다. 사소한 질문이라도 하려면 친구들 눈치 보이고 얼른 수업 마치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보였다. 처음 몇 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방과 후에 선생님을 찾아가면 오히려 그런 것은 왜 물어보는지 되물으며 그냥 공식대로 외우라는 답변만 받았다. 그때 나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 교과서인데, 무작정 외우는 것이 다라면 선생님은 대체 왜 있는 거지?’ 싶었다. 그때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들도 모르는 것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아야 잘 설명해 준다고 했다. 나는 4학년 때까지 학원을 그리 다니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하니까, 학교 선생님은 답안지 확인해 주는 학습지 선생님보다 못하다는 말을 해줬다. 정말 그렇다면 학교 공부만

해은 내가 억울해서 그날 바로 어머니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졸랐다. 지금도 학교 선생님은 학교가 시간 보내려고 있는 곳이 아니도록, 교과서밖에 다른 공부라든가 교과서에서 찾은 궁금증을 답해줘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그렇게 살다 보니 성격도 무뎌져서 거슬리더라도 그런가보다 넘어가고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는데 글을 쓰려면 달라져야 했다. 그러나 벌써 굳어진 버릇으로 비판하는 눈까지 기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오덕 선생님을 닮은 어른을 찾게 되었다. 지금까지 만나본 어른들 중에 누구보다 비판을 잘 하는 분이 이정우 선생님인데, 가끔 내가 눈치 보여 말하지 못한 것도 속 시원히 하시는 것을 보면 대범하다고까지 느껴진다.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내가 쓴 동시들도 이정우 선생님이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감동받은 일을 이야기하신 것을 받아 적어 만들었다. 요즘은 몸이 불편하셔서 유튜브를 보는 날이 많으신데 그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신다. 이오덕 선생님이 5년 동안 누워서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쓴 시들은 이정우 선생님 말에서 많이 나왔다고 느낀다. 또 어른이라면 모두 체면치레를 하기 마련인데 이정우 선생님은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과 통화하다가도 우리 말이 아닌 잘못된 말은 고치라고 짚어주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좋게 좋게 생각하여 우리말에 관심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텐데 말이다. 바른대로 말하는 소리는 고깝게 들리지 않아 미움받을 것이 무서워서라도 나라면 말을 못 하겠는데 신기했다.

물론 이정우 선생님은 이오덕 선생님이 아니지만, 아버지인 이오덕 선생님을 가장 따르고 가까워서 모셨으며 실제로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을 받았기에 배울 점이 있다고 느낀다. 또 자신이 이오덕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나서거나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이오덕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오덕 선생님 소식만 들으면 가슴 뭉클하고 반가워하지만, 가난한 자신들은 정규교육 다 배우지 못

했다는 자격지심 때문도 있겠고 그보다 존경스런 이오덕 선생님 이름 앞에 누구라고 함부로 뭇뭇이 나서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오덕 선생님은 학교 교육을 안 배운, 덜 배운 사람일수록 깨끗하고 맑은 글과 말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라 했지만 현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비아냥대기 때문이다. 일기를 보면 이오덕 선생님도 산골학교를 나와 좋은 곳에는 취직 못하자 선생님에게 취업 부탁을 하고 고향을 떠나 외롭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의 소식을 들으며, 제도교육 안에서는 제자들을 끝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깨끗한 시와 글을 썼던 제자들은, 지금도 시골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고 글재주로 먹고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 봐도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이 통한 것은 아닐까 싶다. 지금 이오덕 선생님 이름을 내걸고 나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높은 학위까지 있으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라도 나서서 이오덕 선생님을 알리는 것이 고맙다면 고마운 일인지 잘 모르겠다. 누구라도 이오덕 선생님을 좋아하면 이념이 달라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이오덕 선생님이 살아생전 그런 분들을 멀리했던 것은 아니었길 바란다. 그렇지만 나는 이오덕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뿐만이 아닌 다양한 직업층의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살짝 아쉬웠다. 하긴 이오덕 선생님 뜻을 정말 아는 분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세상은 깨끗한 우리말을 쓰고 있겠지 아이들은 더 나은 참교육을 받고 있겠지 싶다. 교육학을 배우면 이오덕 선생님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오덕 선생님 나신 지 100년이 된 지금까지 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생님은 별로 없다는 게 아쉽다. 그리고 아직 이오덕 선생님이 생전에 남기신 많은 자료가 먼지 덮인 채 있는 것도 마음 아프다. 내가 어서 저 먼지라도 털어 정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책 펴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 울산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의 우리말 큰사전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지난 10월 11일(토) 우리 이웃에 사는 먼 집안인 권상호 씨가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 하고서는 집에 있기보다 어디 나들이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디를 갈까”고 하기에 울산 있는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이 생각났다. 아무런 뜻 없이 가기로 하고 차에 길 안내장치가 안 되어서 주소만 가지고 찾아갔다. 그곳은 울산 중구 병영12길 15번지였다. 그러고 보니 울산 병영성 바로 아래다.

몰어몰어 찾아가니 안내원이 두 명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은 남녀분이 계셨다. 우리가 경주에서 왔다고 하니 외솔 최현배 선생의 일대기를 보여주시기에 보았다. 전시관을 돌아보는데 ‘우리말 큰사전’이 전시되어 있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그 책에 얹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쓴다.

오래전부터 나는 최현배 선생님의 책 ‘새로운 중학말본 1968년 발행’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당시 외솔기념관을 개관할 것이라기에 내가 가진 ‘새로운 중학말본 1968년 발행’을 보이고 싶어서 외솔회에 전화하였다. “제게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 지으신 중학말본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말본으로 공부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무국장이신 박대희 선생님이 외솔회에 기증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편으로 우송해드렸는데, 얼마 뒤 또 울산에 외솔기념관이 문을 여는데 책 기증할 사람은 연락 바란다고 했다. 다시 외솔회에 전화 드리니 회장님께서 언제 오시겠다기에 어디서 만날 것인지 여쭙어 약속을 했다. 그랬더니 기차로 경주역에 몇 시쯤 오시겠다기에 약속시간보다 20

분 먼저 경주역 앞에서 기다렸다. 멀리서 어느 한 분이 전화를 하시는데 나에게 하는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다. “제가 연락드린 누구입니다” 하니 “우리 집에 가시자” 하시기에 택시 대절로 우리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책을 보여드렸다.

그중 우리말 큰사전 1, 2, 3, 4, 5, 6권까지 다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책을 달라 하셨다. 그것 말고도 몇 권 더 드리니 고마워 얼마를 주시겠다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하면서 드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방명록에 적어주고 가십니다” 하니 “아름다우신 권순채 선생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신 권 선생님의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9. 5. 21. 외솔회장 최기호 올림” 이렇게 적어주셨다. 돌아가실 때 타고 왔던 택시를 전화해서 다시 불렀다. 경주시내 가서 아마 택배로 내가 준 책들을 붙인 것 같다. 그렇게 기증하고 난 뒤 나는 다시 그 책을 사려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팔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 뒤 외솔 기념관 개관을 하고 신라문화 동인회에서 문화유적답사를 가는데 울산 외솔기념관에 가자고 해서 갔다. 가보니 그 책들을 가져간 외솔회에서 외솔회가 기증했다고 써 놓았기에 ‘우리 집에 있던 책인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실 이러저러 해서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어느 한편은 아쉽기도 하였다.

그 귀한 책들은 사실 정의순 수녀님께서 1989년 2월 경주 근화여중고 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 하고 가실 때 가져갈 책이 너무 많으면서 그 책들을 나에게 가져가라고 하셨다. 감사히 가지고 와서 보관하다가 외솔회에 좋은 마음으로 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아쉬운지 부산 보수동 헌책 골목에 중고 서적 중에서도 사전 전집들을 다루는 ‘대신서점’을 갔다. “우리말 큰사전 옛날 것 있는가?” 물으니 있다면서 창고에 가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줌 있으니 가져오는데 보니까 내가 외솔회에 드린 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얼마 하는

가 물어보니 제법 돈을 많이 달라기에 두말 않고 달라는 대로 주고 사왔다.

오랜만에 사전 내용을 보니 제1권은 1949년 10월 9일 초판 발행, 1950년 7월 1일 재판, 1957년 2월 28일 3판 발행이었다. 제2권은 1947년 5월 5일 초판, 1957년 4월 20일 재판이었고 제3권은 1950년 6월 1일 초판, 1957년 5월 30일 재판이었다. 제4권은 1957년 8월 25일 초판 인쇄 1957년 8월 30일 발행, 제5권은 1957년 6월 27일 초판 인쇄 1957년 6월 30일 발행, 제6권은 1957년 10월 1일 초판 인쇄 1957년 10월 9일 발행이다.

그때가 한글반포 511돌날이었다. 구입하고 나니 마음이 놓였다. 지금은 우리말 큰사전 원고 원본이 국가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것 같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에 그 서점에서 북한이 펴낸 ‘조선말 대사전 1992. 10. 31 발행’ 1권과 2권을 사온 것이다. 이 사전은 100부 한정판으로 판매한 것이었다. ‘가사문학전집 1961년 7월 10일 발행’도 사고 얼마 뒤에 다시 가니 그 서점은 없어지고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 내가 귀한 책을 많이 사온 서점인데 없어져서 너무나 서러웠다. 이런 귀중한 책들이 우리 주위에서 자꾸 사라져 가니 아깝고 아까울 따름이다.

이번 외솔 기념관 방문은 나에게 아주 뜻깊은 방문이었다. 우리 집에 있던 책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모아둔 국어사전만 해도 출판사 6군데(삼성출판사, 금성출판사, 민중서관, 그밖에)의 것이 다 있다. 사전이 우리말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앞으로 해마다 우리말(국어) 사전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은 출판사에서 사전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넘어간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짧은 이야기>

## 병실에서 지낸 나날 2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병실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어제 수술한 사람이 많아서인지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 나는 기껏해야 수액 넣는 일, 약물 투입, X레이, CT 사진 찍는 것이 전부이고 이 결과는 잘 설명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기도 한다. 무슨 사진이든 찍어보고 지금 병 진행이 어떻다든지 설명해 주면 좋겠건만 그것이 아 니어서 불만 아닌 불만이다. 어디 문의할 때도 없고 하여 퇴원이 언제쯤 될지 막막하다.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아갔구나 확인하고 싶다. 병실에 있으면 환자마다 가지각색이다. 간호사가 이것저것 시키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 없이 고요히 있는 사람……. 간호사는 이번 주에 퇴원하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한참 후 퇴진 때 담당의사가 와서 혈압약을 조절해 보고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 보고 퇴원하도록 하자고 하셨다. 옆에 고령의 환자가 수술하고 와서 마취에 취해 잘까 봐 간호사와 의료진이 와서 잠을 못 자도록 하였다. 그러다 보니 병실이 조용할 때도 있고 소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다른 환자에 견주면 나는 정상 인인데 자꾸 붙잡아 놓는 것은 재발할까 봐 불안한 것 같다. 뇌 쪽이니 조금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것 같다.

###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병실에 오래 있다 보니 아침에는 밥 먹고 약 먹는 것이 하루 일정인데 의사가 퇴진 와서 무슨 지시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치료하는 것이 없다.

뇌혈류 주사액과 그밖에 약물 주입이 있을 뿐이고 의사나 간호사들도 자기네 업무 이외는 살피지 않는다. 찢어지고 부서진 것은 완치되면 금방 퇴원한다. 그렇지만 나 같이 뇌에 이상이 있으면, 보기에는 환자 같지도 않고 환자 자신도 괜찮은데 퇴원을 안 시켜주니 답답할 지경이다. 현재로서는 농사일 말고 별다른 일이 없지만 그래도 퇴원하면 퇴직 문제, 실업 문제 따위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밀려 있을 것이다. 모내기도 다가오는데 고장 난 경운기를 맡긴 지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소식이 없어 궁금하기만 하다.

아침에 담당간호사가 와서 오늘부터 약을 바꾸어 보고 상황 봐가며 내일이 나 모레 아니면 이번 주에 퇴원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은 오늘 퇴원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외래에 와서 진단받으라고 하였다. 오후 3시 50분쯤 한 사람이 또 입원하였다. 그래서 병실이 꽉 찼는데 내일 또 한 사람이 퇴원이고 세 사람은 장기간 입원할 중환자이다. 오늘 회진 오겠다고던 의사는 회진도 안 오고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기다리게 된다. 이제 퇴원하면 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주 짧은 동안 충격을 받은 사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후 4시 30분쯤 회진 오신 담당의사가 혈압약 바뀐 것을 먹어보고 주말쯤 퇴원하는 것으로 해보자고 하셨다.

###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쯤 되니 간호사가 와서 혈압 재고 있는데 잠이 곤히 들었다. 평상시 같으면 잠에서 깨어날 것인데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깊게 잘 잔 것이다. 어제 혈압약을 바꾸고부터인지 잠이 잘 온다. 늙을수록 잠이 잘 와야 행복한 것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낮에는 자꾸 졸음이 오는데, 그때도 잠이 오면 몰라도 잠은 오지 않고 졸음만 오니 말이다. 잠을 깨서 좀 있으니까 링거 주사액을 같이주고 가는 것이었다.

잠을 잘 자고 나니 몸이 한층 가볍고 상쾌하였다. 무슨 일인지 오늘은 5시가 넘으니 환자들까지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다. 아침밥을 먹고 물을 받으러 가니 간호사들도 자기 맡은 분야별로 부지런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하느라 바쁘다. 8시쯤 담당간호사가 오더니 혈압은 정상이고 성형외과에서 사진을 한번 찍을 것이라고 하였다. 9시 10분 의사선생님이 회진 오셔서 혈압은 정상인데 이제 약 먹어보고 상황 봐가면서 월요일 퇴원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고 오늘 성형외과 X레이 찍어 보라고 했다. 가시고 난 뒤 금방 2층 영상의학과 4번 촬영실에 갔다. 서서 앞, 뒤, 왼쪽, 오른쪽, 엎드려서 앞, 뒤, 왼쪽, 오른쪽 찍고는 병실로 되돌아왔다. 10시 20분 간호실습생이 와서 혈압 재니 120:80, 체온 36.5도 모두 정상이었다. 앞으로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말고 무엇이든 꼼꼼히 살펴야겠다. 밖에는 날씨가 흐렸지만 그래도 푸른 나뭇잎을 볼 때마다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였다.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전에 병실 청소하느라 야단이다. 한 사람이 퇴원하고 그 자리에 입원한 사람이 병실을 채웠다. 병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듯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야 해결이 된다. 중환자가 병원에 와서 살아갈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보면 해결되는 것이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 모두 그 사람의 운명에 달렸다.

병실에서는 아침에 혈압 재고 담당간호사가 왔다 가면 담당의사가 출근해 회진 왔다 가신다. 가끔 간호사가 다시 와서 뇌기능제를 주입하고 이력저력 하루가 다 가는 것이다. 언제 퇴원하여 집에 가느냐가 나는 참 기다려지는데 회진 오는 의사가 자꾸 하루 이를 늦추니 마음만 갑갑할 뿐이다. 병원에 있어도 몸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평상시와 똑같은데 퇴원 안 시켜주니 말이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가 넘어서 다른 날과는 달리 환자들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분주하였다. 그리고 좀 있으니 간호사가 혈압 재고 간 뒤 다시 돌아왔다. 오늘 주삿바늘 바꾸는 날이라면서 주삿바늘을 모두 빼버렸다. 어찌 된 일인지 지난밤에는 양쪽 어깨가 매우 아팠다. 평상시에도 그랬듯 비가 오기 하루 이틀 전에 온 몸이 아파온다. 아마도 비가 오려는 건가 왜 그리 아픈지 밤잠을 설쳤다. 일종의 몸살인데 어찌할 방법이 없고 참을 뿐이다. 아무리 병원이라지만 간호사에게 말을 하려다가도 도와주지 못할 듯하고 원인을 알만 하니 아파도 참았다.

6시 20분쯤 주삿바늘을 다시 꽂기 위해 와서 하더니 안 되니까 다른 간호사를 데려와 같이 다시 꽂아주었다. 물어보니 지금 창밖에는 고운 꽃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온 땅을 축축이 적셔주고 오히려 더 빛나고 무성하게 할 비인가보다. 6시 30분쯤 되니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하였다. 7시가 좀 지나서 아침밥을 먹고 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다. 늙을 수록 건강해야 하는데 오늘날은 늙을수록 일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와 불상사가 일어난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밥 먹고 아침약을 주기에 받아먹었다. 새벽에는 이슬비가 온다던데 아침에 밖을 내다보니 날이 개고 있었다. 조금씩 파아란 하늘이 보이고는 하였다. 9시쯤 수련의가 오더니 혈압 체크를 하고 월요일 퇴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오후 1시쯤 내 앞자리가 비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이 입원하였다.

오후에 지금까지 쓰던 볼펜이 안 나와 뇌기능제 약 주입하러 온 간호사에게 부탁하니 이 병원에서 준 볼펜이 아니냐 하기에 볼펜에 우리 아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고 보여주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 자루를 챙겨주지 않아 병원 아래 있는 가게에 가서 1,500원 주고 사 왔다. 병원은 고치러 온 병 이외는 신경을 안 써주니 환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같았다.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잠결에 누군가 와서 혈압을 재고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 4시 30분쯤 되었다. 그리고 5시쯤 되니 약물 투입 주머니를 바꿔주고 가는 것이다. 병원에 있어 보니 간호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자기 맡은 분야에 따라 부지런히 다니구나 알게 되었다. 밤에 자다가 속이 메스거려 일어나 보니 약물 투입 호스가 중간에 접혀 있었다. 그래서 펴 놓으니 괜찮았다. 병실에 오래 있으니 내가 사는 이웃집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내남 박달에 있다는 사람, 현곡 나원에 있다는 사람…….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 나와 어느 정도 살아온 과정이 비슷하기에 이야기 상대가 된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내 병상 앞을 많이 오가지만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다. 9시쯤 담당간호사가 와서 내일 퇴원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의문점을 물어보라지만, 나는 퇴원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할 뿐이다. 오후에는 간호사들이 약물 주입을 해줬다. 그런데 뼈가 부러졌다고 X레이 찍어놓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다. 뼈가 잘 붙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 붙었다든지 아무 말이 없어 궁금하다. 아들이아이가 하다못해 다른 병원이라도 가 봐야겠다고 전화가 왔다. 병원이라고 꼭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그렇지만 약속대로 오늘 퇴원할지 모르겠다. 뇌경색이라지만 정상인과 똑같은데 퇴원 안 시켜주는 것은 어딘가 더 지켜보자는 데 실험 대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4시 30분쯤 되니 혈압을 재고 갔다. 5시 10분쯤 간호사가 와서 퇴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묻기에 보험회사 제출용을 부탁하고 CD까지 신청하였다. 그리고 링거 주사약과 각종 약물 주입선을 모두 떼어내었다. 어쩐지 팔이 가볍고 활기분하고 죄수가 수갑을 풀 느낌이다. 퇴원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설레었다. 가지고 갈 물건을 다 챙기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퇴원 신청하였다. 이번 주의 시작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간호사들이 아침에 많이 움직였다. 간호실습생이 오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려주니 매우 멋있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멋있게 낭만있게 재미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방법대로 열심히 즐겁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 9시쯤 되어서 2층 영상의학과 가서 X레이 찍고 오라기에 X레이 찍으러 갔다. 왼쪽, 오른쪽, 옆으로 누워서 턱을 가장 뒤로 젖혀서 찍었다. 어디 다쳤냐 하기에 증상이 어떤지 물으니 많이 다친 것 같아서 물어본다면서 자세한 것은 의사선생님께 물어보라고 하였다. 담당의사가 회진 와서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오늘 퇴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외래 진료할 때 약으로 조정하겠다고 하였다. 9시 40분쯤 되니 간호실습생들이 와서 체온, 혈압을 재고 갔다. 퇴원하는데 아직 병원비 계산하라는 연락이 안 와서 기다렸다.

11시 10분쯤 지역 협력 연계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와서 상담하고 갔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 연락하겠다고 했다. 12시쯤 병원비 수납하고 각종 서류 발급받고 CD 받고 간호사의 설명까지 들었다. 퇴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아들 차로 집으로 왔다. 집 오는 길에 농협중앙회 경주지부를 가서 퇴직연금 지급 통장을 발급받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집에 오니 진짜 자유인이 된 느낌이다. 이제는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대로 해야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깨우쳤다.

##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 다니던 한의원도 퇴직되었다. 내가 11년 넘게 머물렀던 한의원의 관리실에 있는 내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때 갑자기 병원에 가느라 내가 입고 쓰던 물건도 못 챙겼다. 그것을 정리하러 가는데 평일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오늘 화요일은 한의원 정기 휴일이기에 가서 챙겨오면 좋겠다 싶었다. 그

래서 한의원에 가니 아무도 없고 내가 신던 신은 떨어지고 물이 새는 장화는 관리실 방안에 넣어놓았다. 내가 어디 갈 때 신으려고 비닐봉지에 넣어 마루 밑에 놔둔 것은 다 없애버렸다. 쓰레기봉투를 싸가서 못 쓰는 옷과 물건들은 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놓았다. 쓸만한 것만 챙겨서 오토바이에 싣었다. 그래도 내가 11년 7개월 근무한 곳이라 둘러보니 빨간 나무는 다 쌓아 놓았다. 채소밭 비닐 씌운 곳은 고추와 오이를 심어놓았다.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하고 집에 오다가 그래도 한의원의 각종 자재 거래처인 영진철물 가서 사장님께 인사드렸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짝이고,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을 지낸 강두언에게 전화했다.

친구가 경주 황룡동에 있는 표충사를 가보자기에 가기로 했다. 표충사가 어떤 절인지를 알아보니 신라 시대의 고찰로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다. 표충사로 가는 길에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지나가다가 보리밥 잘하는 곳이 있다기에 들어가서 보리밥을 2인분 주문하고 먹었다. 다 먹고서는 계산하는데 보니 32,000원이었다. 아무리 밥값이 비싸다지만 1인당 16,000원은 비싼 느낌이다. 요즘은 보통 8,000원 언저리인데 거의 두 배라니 너무 비싸다 싶었다. 그리고 표충사 어귀에 이르러 차를 세우기에 왜 세우는지 보니 자기 사촌동생이 있다고 세워서 만나보고 왔다. 금방 오더니 표충사 조금 가면 된다면서 갔다. 포장지 다 되어 있는데 매우 가파른 산길이었다. 한참 오르다가 차를 세우니까 보니 너무 경사진 곳이라 “좀 더 올라가서 평지에 차를 세워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했다. 다시 차를 몰아 조금 올라가니 절 주차장이기에 거기서 내렸다. 비구니 스님께서 물도 한 병 주고 떡과 과일을 주셨다. 친구가 여기에 찾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다고 하고, 자기 아버지가 625 사변날 때 여기서 잠시 농사를 짓다가 군에 입대해서 양구 인제지구 전투에 참가한 이야기를 하였다. 비구니 스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이 없는 듯했

다. 이런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절 안내판에 새겨두면 좋을 듯한데 무슨 일인지 다른 것에만 정신을 두었다. 사실 보면 이런 기록이 이 절의 역사이고 일반 사람이 보기에다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절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언덕 위에 새로운 법당이 지어져 있는데 보니 천진관음보전(天眞觀音寶殿)이 있고 그 위에 산신각도 있어서 가보고 내려오면서 옛 탑이 있던 곳을 보았다. 그런데 탑신석을 축대로 쌓아놓고 그 위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1991년 4월에 답사 왔을 때는 길 위에 옛 신라 때 석축이 허물어진 채 있고 그 위로 탑 기단석이 있어서 내가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다. 그때 옥개석과 탑신석도 봤는데 옛 흔적은 어디 갔는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니……. 문화재도 산골에 있는 것은 멀리 당하기 일쑤이다. 오늘은 친구 덕분에 34년 전에 답사한 곳을 다시 찾아보니 더욱 새로워 보였다. 그리고 면사무소 가서 뇌경련 장애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왔다.

###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논 가서 물 넣어 놓고 붓도감(붓도랑을 유지 보수, 양수기 관리자) 한영립에게 전화하니 논 썩레해 줄 시간이 없다기에 일단 논에나 와보라니 논에 왔다. 붓물 관리비를 주고 논 썩레질해 달라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는 가버렸다. 김영철 황남위탁농농조합에 전화하니 너무 비싸게 달라기에 권상열에게 전화하니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해 달라고 사정해 놓고서 논 썩레질할 정도로 논을 어느 정도 손질해 놓았다. 그러고는 성일수 전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계시던 분과 점심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다. 다시 논에 가서 논 썩레질할 준비를 하는데 모두 바쁘다고 자기네 것만 장만할 뿐이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듯 모두 자기 일에만 충실하다. 옛날에는 이웃에 일도 도와주고 서로 서로 돕고 살았는데 요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듯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



###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아침에 권상열에게 전화 하는데 도저히 써레해 줄 시간이 없다기에 하는 수 없이 한영림에게 전화해서 사정하고 논에 가보니 물은 다 들어가 있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다가 잘못 몸에 이상이 있으면, 농사짓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기에 나는 안 하고 남에게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몸에 무리만 아니면 어떻게든 할 텐데 몸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정해 봐도 안 되면 어쩌나 싶었다. 오후에는 한의원에 가서 퇴직연금을 물어보았는데 대뜸 원장이 오라고 하더니 침까지 놓아주었다. 내 뒤로 환자들이 자꾸 오기에 나오니 사무장이 따라 나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고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집에 와 있으니 사무장이 전화 왔다. 이제 다 처리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 오도록만 기다리라 하였다. 진짜 한의원하고 이어졌던 긴 인연이 떨어지게 되었다.

###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전에 논 가서 우리가 만든 모는 잘못 자라서 다 없애버렸다. 모 상자를 묶어 놓고서 김영철에게 전화하니 오후에 트랙터로 작업해 주겠다고 했다. 논에 가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다. 오후 2시에 온다더니 3시가 되어서 왔다. 써레해 주는데 2시간이 족히 걸렸다. 돈은 본래 달라는 것보다 조금 적게 주었다. 몸이 아픈 만큼 조심조심 해야만 한다. 그래도 논에 제초제를 살살 뿌리고 서는 모 심을 준비를 다 하였다. 트랙터 작업만 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논에 두락(마지기) 수가 많다 보니 일거리가 많았고 위에 찬물 돌리는 쪽도 만 들어야 했다. 내 몸만 건강하면 우리 농사는 놀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프다 보니 일에 겁이 나고 행여나 일하다가 다치면 어쩌나 싶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다.

###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기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논에 가서 논둑도 만들고 싶어서 오토바이 타고 논에 갔다. 논둑을 다 만들고 나니 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와야 했다. 오늘은 어머니 제삿날이다. 해마다 밤 12시 넘어서 지내왔는데 몇 년 전부터 초저녁에 지내는 것으로 하고 밤 8시에 지내기로 하였다. 제사 지낼 사람이라야 우리 아들과 손자 4명이 다였다. 조카들은 몇 명 있지만 멀리 있고 요즘 세상에 산 사람도 잘 모시지 않는데 죽은 사람은 더더욱 관심이 없다. 그만큼 기대도 하지 않고 우리 형편에 맞게 지내면 될 것 아닌가 싶었다. 가장 막내인 내가 평생 부모님을 모셨으니 제사도 지내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가 가장 막내인데 왜 제사를 지내느냐고 언제나 불만이다.

###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오전에 아들이 왔기에 함께 가서 비료를 뿌려 놓고 집에서 점심밥 먹고 논에 갔는데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친구인 황두화한테 오후 1시나 1시 30분쯤 모를 가지고 우리 논에 오겠다고 했다. 올해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있다 보니 못자리 관리를 안 해서 모가 모두 녹아버리고 안 올라왔다. 하는 수 없이 친구에게 부탁하니 100상자를 갖다 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아까 왔던 아들에게 전화하니 며칠간 회사일 하느라 잠도 못 잤다면서 방금 집까지 왔는데 내일 하자고 했다. 사정사정 하니 오후 1시 반쯤 오기에 모심는 기계인 이앙기를 손보아 놓고 있으니 모를 싣고 왔다. 140개 정도는 넉넉히 될 것이라 하기에 100개 맞추어 심으려고 준비했다니까 가지고 온 것은 어찌하느냐면서 한 상자마다 3,000원씩 달라고 했다. 그래서 논마다 다 갈아놓고 돈은 현금이 16만 원 밖

에 없기에 16만 원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계좌이체 해서 주기로 했다. 모심는데 아들 친구 이상석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런데 상석이도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면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따로 살고 병원비는 상석이 동생이 한 달에 백만 원 넘게 준다고 했다. 상석이는 아버지를 돌보며 일하고 다니면서 조금씩 벌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이들 두 형제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눈물겹다. 모를 다 심고 나니 오후 5시였다. 아들이 기계로 제초제를 뿌리고 상석이는 이앙기를 쫓아주었다. 이앙기는 창고에 넣어놓고 세어보니 모가 30상자는 남았는데 모두 버렸다. 모 상자도 다 묶어서 치우고서는 집에 돌아왔다. 아무리 내가 뇌경색 환자라지만 농번기에는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옛말에 한창 바쁜 6월에는 죽은 사람도 꿈틀거리고, 고양이 손도 빌리고, 부지깽이도 한몫한다고 했다. 그런 말이 전해지듯이 참 바쁜 달이다.

###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아침에 논에 가서 모심는 기계가 들어가고 나온 곳과 논 구석마다 이앙기를 돌리다가 밟아서 비어버린 데에 모를 심었다. 그리고 운동 삼아 논을 둘러보고 집에 오는 것이다. 논도 사람을 잘 만나야 올바른 대접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게 된다. 이러다 보니 누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겠는가. 나도 올해 못자리 하느라 돈을 많이 들였다. 못자리를 실패하고 새로 모를 사는데 40만 원 가까이 들었다. 논 장만하는데 또 40만 원에다가 비료, 농약값 이력저력 하다 보니 들인 돈이 100만 원이 넘는데 논농사 직불제 120만 원, 벼 수매는 200만 원뿐이다. 모두 해봐야 고작 300만 원 일 년 수익에 들어가는 돈만 200만 원이 넘고 농기계 수리비 같은 것 빼고 나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다. 월급쟁이 한 달 월급도 안 되니 누가 농사짓겠다고 할까. 농촌의 현실이 이러니 앞으로 농사는 전망도 희망도 없다. 그냥 묵히는 것이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한 것이다.

###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전에 집에 있다가 오후에 논에 가서 물 관리하고서는 들판을 보니 들판의 모도 거의 다 심어가고 있었다. 남들이 모 심을 때 심고 남들이 거둬들일 때 거둬들여야 보기 좋은 것인데, 남들이 다 심은 들판에 모 안 심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다. 이제는 들판이 푸르기만 기다릴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일을 한창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좀 쉬어야 하는데 쉴 틈 없이 하다 보면 어디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나에게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옛 경주시 도시개발 국장인 강두언, 울산에서 회사 다니다가 해발 500~600m 되는 오지 중의 오지 마을에 별장 짓고 살고 있는 친구인 최상욱, 그다음에 농사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황두화다. 서로 도와주고 조언도 하고 정답게 지내는 친구들로 손꼽는데 오늘은 최상욱에게 전화하여 벽도산(碧桃山)을 가기로 했다. 해발 436m 정상에 KBS, MBC, SBS 따위 송신소가 있고 그 남쪽 산마루에는 아직 기록에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봉화대 터가 있다. 그 돌무더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성주굴이란 곳이 나온다. 옛 절터인데 돌로 석축 쌓은 흔적도 있고 밭을 일군 터도 남아 있는데 확연할 겹 가기로 했다. 가보니 산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기에 함께 가는데 KTX 고속철도 경주역사가 있는 마을로 해서 들어갔다. 초입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해마다가 산꼭대기 가는 길을 찾고서 쪽 올라가니 산꼭대기 부분에 정자가 있고 송신소도 있었다. 동쪽 산 능선에는 행글라이딩 나르는 곳이었다. 산꼭대기에는 묘가 한 기 있었다. 거기서 보니 경주 남산과 고속도로 경주나들목과 효현동이 훤히 보이고 되돌아보니 경주시 건천읍과 서면이 다 보이는 곳이었다. 경주 시가지도 보였다. 왔으니 봉화 터를 가려고 했는데 산길을 막아 놓았기에 못 가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때마침 산딸기

가 빨갛게 잘 익어 있었다. 산을 내려와서 경주시 서면 천촌리(삼촌)에 있는 신라 때 고찰 오봉산 주사암과 산성인 부산성을 가기로 했다. 길을 안내하는 내비가 잘못해서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기에 가다가 옛 기억을 되살려 길을 찾아 올라갔다. 하도 꼬부랑길이라 굽이치는 곳에서는 바로 못 올라가고 뒤로 물러섰다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차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다. 그러다가 진짜로 차를 만나서 어찌지 참 곤란했는데 상대방 차가 비켜주기에 다행히 주사암 주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바위가 아름다워 저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다. 이끼 낀 바위에 담쟁이의 푸른 잎이 더욱 아름다웠다. 바위 틈새에 지어진 주사암 영산전과 근래 지은 대웅전도 가보았다. 신라 시대의 고찰 주사암과 경주를 지켜주는 부산성이 있는 봉우리가 다섯 개인 오봉산. 이 절에는 김유신 장군이 여름에 보리로 술을 빚어 병사들에게 먹여서 사기를 복돋았다는 지맥석(마당바위)도 있다. 내가 듣기로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를 열 명 넘게 낳았는데 낳으면 죽고 낳으면 죽고 했단다. 하는 수 없이 이곳 주사암에 와서 빌고 빌고 하여 낳은 아들이 아버지라 했다. 1960년대는 어머니와 큰형수가 해마다 이 절을 찾고 하였다.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보다 9살 위고 작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보다 7살이나 적다고 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식들인지 모른다. 그런 일도 있어서 오랜만에 여러 의미로 이 절을 찾아왔는데 오늘따라 49재 마지막 재를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오늘이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장날이었다. 시골장이라고 갔으나 장사꾼은 셋뿐이고 여러 모종과 과일밖에 없었다. 썰렁하고 시골 장날 맛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장터에 국밥집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 별 집이 없어서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점심을 사 먹었다. 친구의 차로 친구 집에 가서 저녁밥을 주기에 먹고 한참 놀다 왔다. 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농사짓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어디 다니는 것을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다.

###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오늘은 성형외과 외래와 신경외과 외래진료가 있는 날이라 아들이 와서 동국대 경주병원까지 태워주었다. 병원 원무과장이 아시는 분이라 차 한 잔 하고 가라기에 가서 차 한 잔 하고 성형외과를 갔다. 부러진 뼈가 어느 정도 봉합되고 있는데 완전히 봉합되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고 충격만 주지 않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할 날짜도 늦어서 안 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경외과에 가니 별 주의 사항은 없고 그냥 약 처방뿐이었다. 약을 주면서도 다른 주의할 점이 없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집에 오니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받으니까 우리 논에 온다기에 가서 있으니 금방 오더니 예초기를 가져갔다. 나한테 예초기가 몇 대 있는데 그중에 한 예초기는 몇 년 전에 친구가 준 것이지만 한 번도 써보지 않고 돌려주었다. 이번에 병을 앓아보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 힘에 맞도록 일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들판을 보니 모내기는 막바지로 가는 듯 너도나도 모내기를 하더니 이제 들판에 모가 점점 심어지고 들판이 푸르러졌다. 여느 때보다 농업이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전에는 농사가 돈이 되었지만 이제는 돈 되는 농사가 아니라 손해되는 농사인 것이다.

###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내남면에서 가장 높은 산마루에 있는 마을. 이름하여 ‘고사리 마을’ 해발 600~700m 되는 고산지대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토박이들은 다 떠나고 객지 사람들만 사는 마을에 내 친구인 최상욱이 산다. 이번 뇌경색으로 다니던 한의원 그만두고 퇴직연금을 신청해 놓고 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기에, 친구 불러서 그 차로 경주 시내에 있는 농협중

양회 경주지부를 가서 퇴직연금을 재신청하고 경주 첨성대까지 둘러보았다. 능이버섯 오리구이 잘하는 식당이 있다가에 거기에 가서 밥을 먹었다.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기에 가니 꼬부랑길인데 산마루에 있는 집이지만 냉장고랑 여러 전자제품은 최고급이었다. 도시 어느 집 못지않은 최신식으로 꾸민 방과 마당에는 온갖 꽃들을 가꾸는, 그야말로 동화 속의 전원생활이었다. 이 친구는 울산에도 집이 있고 이곳은 별장같이 쓰고 있다. 안마의자와 발마사지 같은 온갖 운동기구까지 갖춘 그 집에서 한참 놀다가 집에 돌아왔다.

###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눈에 모 심은 데 날마다 가 봐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며칠 있다가 가는 일도 있다. 오늘은 꼭 눈에 가보기로 하고 가보니 눈에 물이 적어서 조금 넣어놓고 집에 와 있었다. 옛 문화재청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경주 문화재 발굴기관인 계림문화재연구원을 경영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남시진 선배가 나를 찾아온다고 했다. 우현 고유섭 전집(동방문화사)과 천마총 그날의 이야기(국립경주 문화유산연구소) 책을 가지고 눈에 온다기에 다시 가 있었다. 약속시간보다 20분 늦게 눈에 왔다. 천마총 발굴 50주년 회고집을 보니 선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일하면서 당시 가장 젊은 나이로 발굴단에 참여하였다. 처음은 불국사 복원공사를 했다가 다음 천마총 발굴에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때 젊은 청년들이 지금 7, 80대 노인이 된 것이다. 고유섭 전집은 오늘날 수많은 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고유섭의 한국 탐파의 연구를 뛰어넘는 것은 아직 못 보았다고 남시진 선배는 말하였다. 그리고 보니 나도 마음이 뿌듯하였다. 내가 좋아한 토박이 마을 땅 이름과 나무는 지금 생각하니 어느 누구도 조사 못할 것 같다. 그동안 마을의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나무도 없어진 것이 하도 많아 이제는 내 책을 인용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업적을 남긴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말 동시>

## 해바라기 1

이오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창립대표

1970년대 쓰신 시

해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알아요.  
모든 산 것들의 생명을 주는  
까만 씨앗들을 그 속에 감춘  
눈부신 금빛 둥그런 꽃송이  
아, 해님은 크나큰 꽃이었어요.

해바라기가 어떤 꽃인지  
나는 알아요.  
둥그런 불덩어리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으로 휩싸인 불꽃덩어리  
아, 해바라기는 해님의 모습이네  
요.

우리도 빛을 바라고 살아가야지  
요.

백 번을 잃어도 다시 몸을 바로

잡아야지요.

캄캄한 밤이면 생각하며 돌아가  
야 해요.

지구의 저편을 가고 있는 해님 따  
라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을 믿  
고.

그러면 그 언젠가 우리의 가슴에  
도

해님이 꽃같이 피어날 거예요.  
스스로 환한 빛으로 살 거예요.  
1970. 9. 10.

## 해바라기 2



까만 씨알로 묻혀있던  
그때부터 너에겐 사상이란 게 있  
었지.

암흑 저편에 태양이 돌고 있다는  
-  
지구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잃어버려도 백 번을 잃어버려도  
다시 몸을 바로 잡아 기다리는  
너는 어쩔 수 없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믿음.

믿음은 이렇게 빛이 되는 것  
믿음은 태양으로 살아가는 것  
보라, 이 아침 동편 하늘에  
이제는 태양이 뜨지 않아도 좋다.

여기 겹쳐 받침을 걸고 터져 나와  
드디어 우리를 내려다보는  
또 하나의 태양!

세계의 암흑을 삼키고,  
세계의 빛을 모아,

오, 너는 십자가의 그 사랑,  
칠혹의 어둠 속에 부르던 그 이름,  
연기로 사라진, 흠으로 돌아간 이  
들의 그 모습,  
새들아 날아라, 빛의 둘레를,  
두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빛을 노래하라.  
빛을 물고 빛을 업고 하늘을 날아  
라.

땅 위에서 쳐다보는 목숨들  
목숨들의 가슴마다 믿음을 전하  
라.

출렁출렁 강물의 노래같이 넘치  
는…….

1970. 9. 15.

### 해바라기 3

꽃을 피우겠습니다. 해바라기같  
이 커다란 꽃을,

캄캄한 밤중에 터져 나오는 꽃송  
이의 그 우렁찬 소리를 듣고,

모든 풀과 나무와 꽃들이 기쁨에  
온몸을 떠는 그런 꽃을,

두 팔을 잔뜩 벌려도 안을 수 없  
는,

그래서 그저 훨훨 그 둘레를 날며  
노래하는 새들이

그 빛을 받아 더욱 어여쁜 꽃을,

온 하늘의 빛을 모아 세계로 뿌려  
주는 태양과 같은,

그 가슴에 영원히 번성할 수천만  
의 씨알을 감춘 꽃들,

아, 어디서인가, 오늘도 훨훨 타  
오르는 불,

까맣게 솟구치는 연기,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하늘에 퍼  
지고 사라지는,

그것은 온 우주의 충만한 믿음,

우리들 가슴에 스며드는 향기,

출렁출렁 넘쳐흐르는 강물의 노  
래 같은,

논두렁에 거꾸로 처박혀 죽은 그  
이들의 믿음,

전기의자에 앉아 연기가 된 그이  
들의 사랑이,

다시 무지개보다,

눈부신 빛으로 커다랗게

피어나는 꽃,

소쩍새 울음소리 들려오던 찌리  
울타리 위에,

파도 소리 만져지는 돌담 앞에,

병든 가로수 늘어선 신작로 가에,

피우겠습니다. 그 태양의 꽃을.

1970. 9. 15.

-----

## 코스모스 2

수천, 수만의 분홍나비들이

수만, 수십만의 흰나비들이

한데 섞여 환한 햇빛 속에

마구 팔랑거리는 것을 보았느냐?

파랑을 칠하고  
다시 하양을 칠하고  
그 위에 또 파랑을 문지르면  
저 가을 하늘빛이 나온다던 아이  
야.

오늘 장마 건한 일요일  
너는 집에서 담뱃잎을 묶고  
온종일 앉아서 엉덩이가 아프도  
록

손가락이 아리도록 일을 하고  
네 동무들도 모두 아기를 업고,  
집을 지고……  
나만 여기 빈 운동장  
코스모스 꽃밭 앞에 섰다.

아, 우리 모두 내일 아침이면 여  
기 모여  
한 번쯤 진정 나비가 되고 새가  
되어  
춤추고 노래해 보자.  
가난도 설움도 잊고  
꽃이 되어 하하하 웃어보자.

수만, 수십만의 나비같이  
눈부신 빛 속에 팔랑거리는 꽃밭  
코스모스 꽃밭 속에서.

1970. 9. 20.

## 감

### 1

아침마다 감나무 밑에 간다.  
감나무 밑에 깔려있는 감나무 단  
풍잎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감나무 잎  
그 고운 단풍잎에 빨간 홍시들도  
안겨 있다.

물러 터지지 않고 단풍잎 상보에  
고이 안겨 있는 홍시

물러 터진 홍시를 빨아먹고 있는  
나비들

뿔다 오므렸다 하늘 날개 빛은 또  
하나 단풍잎인데

나도 고이 떨어진 홍시를 두 손으  
로 받쳐

나비처럼 빨아먹으면

내 몸도 파란 가을하늘 아래 곱게  
물든 단풍잎이 된다.

## 2

아침마다 감나무 밑에 간다.

감나무 밑에 깔려있는 단풍잎은

그 고운 보자기 위에는 빨간 홍시  
들도 여기저기 안겨 있다.

물러 터져서 속살 벌겋게 드러난

홍시를 빨아먹고 있는 나비들

펼쳤다 오므렸다 하늘 날개 빛은 또  
하나 단풍잎인데

나도 고이 떨어져 단풍잎에 안겨  
있는 홍시를

두 손으로 펼쳐 들고 나비처럼 빨  
아먹으면

내 몸도 파란 가을하늘 아래 곱게  
물든 단풍잎이 된다.

1970. 10. 8.

너의 웃음은 빛이 되어  
온 하늘에 흩어지고

너의 노래는 구름을 타고  
먼 산을 넘는다.

너의 모습은 강물에 잠겨  
바다로 흐르는데

너의 꿈은 밤마다  
멀레 소리로 별에 가 있다.

오, 코스모스  
우주의 꽃!

네 앞에 서면  
환한 빛 가슴에 가득 차는  
태양

1970. 10. 14.

<우리말 동시>

## 가을걷이

김리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울 뿔쫄은 진달래》시집에서.

누렇게 머리 숙인 삶내음\* 좋고  
 좋네  
 갈걷이\* 끝나면 짐승들은 결잠\*  
 드니  
 언제면 이어진 뒷마\* 다 함께 지  
 내냐

\* 삶내음 : 다 익은 벼이삭 내음.

\* 갈걷이 : 가을걷이, 추수.

\* 결잠 : 겨울잠, 동면.

\* 뒷마 : 남북, 한국과 조선.

한창

이 가을 누구는 울고 또 누구는  
 웃겠는가

\* 불이 솟다 : 날카롭게 쏘아본다.(鋭く睨み返

す)

## 바람밤

서러움은 쪼각 나라\* 아쉬운 건  
 눈보라 밤  
 하늘땅 해는 달빛 이네는 어디 있  
 고

예순을 다 바쳤어도 모자람은 남  
 는구나

\* 쪼각 나라 : 분단 국가.

## 허수아비

누군가 비웃으면 허수아비 불이  
 쏘고\*

대밭에 우뚝 솟은 대나무는 봄이

## 그믐밤

젖은 게 아니라 걸치고 있는 거다  
그믐밤은 집안\*인걸 무엇 그리 바  
뿐가

온밤을 내리고 내려 밤끝을 찾는  
다

\* 집안 : 보통일.

## 별밤

젊음을 자랑하던 옛날이 그림단  
들

되돌아 잡을손가 당겨서 쥘손가  
오늘을 힘껏 사는 게 새 맛이라  
하느니라

## 달밤

보름이 밝을까 그믐이 어두울까  
요까지 걸어온 길 길기도 하는구

나  
죽살이\* 기껏 쉰 해를 차근차근  
다듬는다

\* 죽살이 : 인생.

## 막걸리

막걸리 한 잔에 사나이는 꿈을 품  
고

짜사랑 아가씨는 눈물을 지으니  
밝검\*은 어디 계시나 단 잠자린  
어디일까

\* 밝검 : 단군.

\* 단 잠자린 : 좋은 잠자리는

<우리말 동시>

## 내가 안 쓰는 말 2

숲노래 최종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운영위원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을 썼다.

### ⑤ 무지

그대로 굴레에 갇혀서

하나도 안 배우더라

안다면 알뜰히 말하고

알맞게 이어가겠지

모르면 멍하니 읊다가

머뭇머뭇 망설이지

알기에 알차게 가꾸고

아름다이 헤아린다

몰라서 밀치고 몰다가

모조리 무너뜨리지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모르는 줄 알고

새롭게 알아가는 길에

반가이 배우며 웃어

모르는 굴레라면

뭘 모르는지 모르기에

알지 못할 적에 ‘모르다’라 하고,

이를 한자말로는 ‘무지(無知)’로 나

타냅니다. 모르기에 잘못이라거나

나쁘지 않아요. “모르는 줄 알” 때에

는 스스로 배우려고 합니다. “모르

는 줄 모를” 때에는 스스로 단아결

면서 짜증을 내고 부아를 일으키면

서 싸우거나 다투기 일쑤입니다.

“모르는 줄 모를” 때에 함부로 달려

들거나 몰아붙이거나 밀어대기 때

문에 ‘어리석다’고 여겨요. ‘알다’라

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난 내가 무엇

을 모르는지 알아.” 하고 말하면서

“난 내가 모르는 길을 배울게.” 하고

덧붙입니다. 모르는 줄 알기에 “모

르는 일”을 함부로 안 해요. 모르기

에 늘 고개를 숙이면서 묻습니다. 모  
르니까 어른이어도 어린이한테 얌  
전하게 묻고서 배우려고 합니다.  
“모르는 줄 모를” 적에는 나이를 앞  
세워서 누른다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로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아무리  
달아난들 끝나지 않으니, “모르는  
길을 배워서 알려고 하지 않을” 적  
에는 늘 챗바퀴를 돌아요. 챗바퀴질  
로 허둥지둥하기에 그만 스스로 지  
쳐서 무너져요. 하나씩 배우는 길은  
얼핏 더더 보이지만, 차근차근 스스  
로 세우면서 든든하고 새롭게 일어  
서는 살림빛입니다.

## ⑥ 생명

고추꽃 하얗게 피고 지니  
고추송이 푸르다가 빨갛게  
까마중꽃 희게 피고 지니  
까마중알 푸르다가 까맣게  
  
어미새가 바람을 타며  
가볍게 하늘빛 머금으니

새끼새는 물끄러미 보다가  
문득 둥지에서 툭 뛰네

거미는 파랗게 집짓고  
맹꽁이는 풀밭이 집이고  
멧돼지는 풀숲서 잠자고  
해파리는 바다서 하늘하늘

손바닥에 놓은 씨앗을  
마당가에 심는다  
열 해 뒤에는 작은나무로  
천 해 지나면 우람나무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서 숨을  
쉽니다. 사람 곁에는 풀과 나무가 푸  
르게 숨을 쉬면서 모든 목숨불이를  
살찌웁니다. 바다에서도 물결이 일  
렁이면서 못숨결을 살리는 기운이  
뻗어요. 물에서 모든 목숨불이가 누  
리는 물은 바로 바다에서 하늘로 올  
라 구름을 이루다가 뿌리는 비예요.  
바다에서는 바다숨결이 살고, 물에  
서는 물숨결이 사는데, 둘은 터전이  
다를 뿐 나란한 물을 머금는다고 여  
길 만해요. 빗물은 맑게 빛나요. 우



리가 싱그럽게 살아갈 적에는 눈망  
울이 빛나요. 푸나무는 꽃을 피우면  
서 씨앗을 뱉어서 새롭게 숨결을 잇  
고, 사람은 아기를 낳아 아이로 돌보  
면서 숨결을 잇습니다. 우리는 이 숨  
결, 한자말로 일컬으면 ‘생명(生命)’  
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스스로 아름  
답게 사랑일까요? 살아가는 바탕이  
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을 기울여  
봐요. 이 삶을 즐겁게 나누는 길은  
무엇일까요? 목으로 마시는 숨이거  
에 ‘목숨’입니다. 숨을 잇는 빛나는  
삶이라서 ‘숨빛’입니다. 어디에서 비  
롯하고 어디로 가는 살림살이일까  
요? 이 푸른별에는 어떤 숨불이가  
어우러질까요? 온숨결을 돌아보기  
를 바라요. 온빛을 고이 품으면서 어  
깨동무하는 길을 나세요.

## ⑦ 배려

여름이라면  
폭폭 찌는 더운바람을  
겨울이니까

쫄쫄 추운 얼음바람을

처음이라면  
알기 쉽게 살림말을  
익숙하니까  
마음 지을 숲빛글을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나를 마주하는 눈으로  
서로 기울이는 생각이  
함께 나아가는 노래로

돌보고 돌아보면서 동무  
보듬고 살피보면서 이웃  
가꾸고 헤아리면서 함께  
일구고 토닥이면서 같이

눈을 기울이니 마음을 기울입니  
다. 눈이 가니 마음이 갑니다. 눈으  
로 돌아볼 줄 알기에, 마음으로 돌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 아닌 마  
음으로 오롯이 다가가면서 사랑으  
로 포근히 품게 마련입니다. 겉으로  
만 보려 하면 겉모습에 얽매이고, 속  
으로 스미려 하기에 마음빛을 알아

차려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일을 ‘배려(配慮)’라는 한자말로 나타내는데, 우리말로로는 ‘마음쓰기’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쓸 줄 알기에 ‘마음빛’이 밝고, 마음을 넉넉하게 쓰려 하기에 ‘마음그릇’이 깊어요. 혼자 움켜쥐려 하니 ‘마음발’이 얇고, 두루 나누려 하니 ‘마음꽃’이 활짝 피어요. 어떤 하루를 그리는지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으면서 펴려 하는지 곰곰이 헤아려 봐요. 돌아볼 줄 알면서 마음이 그웁합니다. 살피볼 줄 알면서 마음이 가득합니다. 헤아리거나 토닥일 줄 알면서 마음이 넓어요. 마음은 바다 같기에 끝없이 길어올릴 만하고, 마음은 바람 같아서 가없이 푸르면서 맑아요. 이 마음을 눈빛에 실어서 띄웁니다. 이 마음을 손길에 담아서 내뱉니다. 이 마음을 노래로 엮어 들려줍니다.

## ⑧ 공부

머리에 옥여넣기만 하니  
멀미가 나서 고단하고  
멍멍 어질어질 지치고  
생각이 멎는 듯해

마음에 담으려는 길은  
스스럼 없이 마주하고  
스스로 지어 만나면서  
천천히 슬슬 가지

거미는 하늘을 가르면서  
맑게 바람빛 실을 풀고  
제비는 구름을 가르면서  
맑게 들빛 노래를 품네

꽃피고 잎지는 철을 읽어  
눈오고 비오는 날을 읽어  
해뜨고 별돋는 빛을 읽어  
속으로 익히고 몸으로 배워

‘공부(工夫)’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을 뜻한데, 우리말 ‘배우다’를 “새로운 기술을 익히다”로 풀이하는 낱말책입니다. 겹말풀이예요. 이 같은 뜻풀이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거나 어떻게 ‘익히’는  
 가를 알기 어렵겠다고 느껴요. ‘배우  
 다’는 “스스로 몸을 놀려 해보거나  
 꺾다. 몸으로 받아들이도록 스스로  
 해보거나 꺾다”처럼 뜻풀이를 새롭  
 게 추슬러야지 싶습니다. 새롭게 해  
 보면서 그야말로 새롭게 받아들여  
 서 스스로 알아보려는 길이 ‘배우다’  
 라고 할 만합니다. ‘익히다’라면 “자  
 꾸, 오래, 꾸준히 하면서 쉽게 하도  
 록 하다”로 뜻풀이를 붙이면서, ‘배  
 우다·익히다’를 알맞게 갈라서 쓰는  
 길을 밝혀야지 싶어요. 어두운 곳이  
 눈에 ‘익’고, 낮선 길도 어느덧 눈에  
 ‘익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하나도  
 알기 어렵고 낮설지만, 하고 또 하고  
 거듭하면서 몸에 어느덧 붙도록 하  
 는 길이 ‘익히다’입니다. 더 잘 해내  
 고 싶을 적에는 ‘갈다·갈고뒹다·뒹  
 다’라는 낱말을 쓰지요. 더더욱 잘  
 해내고 싶으니 ‘벼리다’라는 낱말을  
 쓰고요, 둘레를 읽고 생각하고 마음  
 을 기울이니 하나씩 알아갑니다. 글  
 도 하늘도 숲도 마음도 읽어요.

## 묘사 분류집

최영자, 최응구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묘사 분류집》에서.

### 1. 성격 묘사

#### ① 어질고 너그러움

◆ 이웃집 수돌이는 언제 보아도 덕성스럽고 귀여웠다.

◆ 그는 덕스러운 얼굴에 반기는 웃음을 띠고 자리를 권하였다.

◆ 부지런히 일하는 고상한 품성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며 자녀를 기르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 붓는 부드러운 마음씨는 지난날 조선 여성들의 아름다운 덕성으로 되어 있었다.

◆ 자네 형같이 양순한 사람을 해치려는 놈이 다 있더라 말인가?

◆ 치호가 싸워야 할 때는 무섭게 싸워도 여느 때는 양순해 보인다.

◆ 그의 말소리는 무척 부드러워 영숙이의 마음을 녹여주는 인정이

풍기고 있었다.

◆ 동혁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더움을 느낀 성희는 구김 없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 송 씨 부인은 사람이 너글너글하고 또 마음씨가 착해서 동네 젊은 아낙네들이 그의 말에 잘 따랐다.

◆ 옥선이는 오빠의 훌륭한 체격, 그의 아름답고 선량한 얼굴을 믿음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 명준이는 어느덧 소박하고 순진하고 선량한 이 마을 농민들과 낮이 익었고 또 정이 들었다.

◆ 서글서글하고 활달해 보이는 그의 모습은 펍 인정스러워 보인다.

◆ 선생님께서는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진 머리를 짚어주며 자애롭게 타일렀다.

◆ 부인의 높은 은혜와 어질고 착

한 말씀 죽어 황천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리다.

◆ 경덕의 어머니는 순옥이가 참하기는 하지만 그 집하고 짝이 기울어 어찌겠느냐고 하였다.

◆ 사모님은 선생님에게 못지않을 만큼 어진 사람으로 이름이 났다.

◆ 그는 무슨 생각에 잠긴 어진 눈으로 숲속 버드나무를 바라본다.

◆ 어머니는 얼굴에 인자한 웃음을 띠며 일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 ② 활달하고 소탈함

◆ 영호는 호리호리한 영옥이보다 몸집이 배나 뚱뚱하고 성품도 체격에 맞게 걸걸한 옥순이가 더 마음에 들었다.

◆ 그 동무는 아주 걸걸하고도 호협한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 부인은 본시부터 일에 열성 있고 또 성질이 서글서글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들면 남자 못지않게 서두는 사람이었다.

◆ 봉희는 용이의 서글서글하고

정열에 불타는 성격을 좋아했다.

◆ 그 여자는 하관이 좀 흘쭉한 편이었으나 어글어글한 눈매며 활발한 태도가 어딘지 사근사근한 느낌을 주었다.

◆ 그 사람은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운 태가 있어 사내가 그래야지.

◆ 사람이 번잡스러운 근석이의 아내는 불임성이 좋고 시원시원하여 이 집 저 집에 다니며 일을 잘 해주었다.

◆ 영기는 성이 나면 벌컥 하는 결함이 있기는 하나, 뒤가 없이 즉시 풀어버리는 시원한 성격을 가졌다.

◆ 춘향 모의 거동을 살펴보니 반백이 넘었는데 소탈한 모양이며 단정한 거동이 표표정정하고 살집이 풍영하야 복이 많은지라…….

◆ 트랙터 운전수는 호기스러운 장수같이 이 기계 위에 올라앉아 넓은 들을 호령하며 갈아 번져놓는다.

◆ 뛰어난 재질과 호방한 성격은 그로 하여금 유가사상의 구속과 허식에 오래 매어있을 수 없게 하였다.

◆ 정수는 경순이와 반대로 호방

하고 의지가 있는 성격이었으나 역시 고독한 사람이었다.

◆ 철수는 활달한 사람이라 시시한 그런 문제에 끼어들지 않을 거요.

◆ 정옥이는 말없이 암전한 제 언니에 견주어 성격이 활발하고 터놓고 숨기지 않았다.

◆ 삼분 어머니는 남자답고 씨익 씨익한 사위가 마음에 무척 대견하였다.

◆ 그는 어려서부터도 영특하고 습습하고 잘게 굴지 않았다. 여러 아이들과 놀 때는 반드시 군대 놀음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군대 놀음에서는 반드시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 사내자식이란 좀 털털해야지.

◆ 그는 우스운 소리도 곧잘 하고 털털한 맛도 있었다.

◆ “창봉이도 성미가 텅텅한 편은 아니지요. 텅텅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간간한 편이지.”

◆ 남편의 대범하고 활협한 성격에 그는 다시 한 번 속으로 머리를 숙였다.

◆ 그는 협협한 성격을 가지고 있

었다.

◆ 그는 보기와는 달리 특수한 사람이었다.

◆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마음.

◆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고 활달한 사람.

◆ 푸짐이 좋은 사나이.

◆ 삽삽한 성미.

◆ 언제나 선선하고 반죽 좋은 바둑 어머니는 농사일에서도 맨 앞장에서 나간다.

### ③ 부드럽고 친절함

◆ 철수는 사내인데도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한데 너는 그래도 여자이니 좀 더 곰살궂어야지.

◆ 마음씨 고운 사람이 잘못되는 일은 없는 법이다.

◆ 덕수는 아버지와 달라서 불임성 있고 상냥하고 숙부드러운 맛이 있었다.

◆ 그는 평상시에는 아주 상냥스럽고 인정 있어 보이다가도 일단 수가 틀리면 여간 엄하지 않았다.

◆ 금녀는 승호의 정직하고도 상

냥한 성품이 평소부터 좋았으며 그의 외롭고 고생스럽던 과거를 남달리 동정했다.

◆ 그는 본시 불임성이 좋은 사람이어서 아무와도 터놓고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었다.

◆ 세 동무 다 농촌 출신인 듯 순직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 새 며느리는 우선 말수가 적고 일에 부지런하면서도 만사에 차분 차분한 것이 시어머니 마음에 무척 대견하였다.

◆ 언제 찾아가나 그는 늘 상냥하고 친절스럽게 우리를 대해주었다.

◆ 그렇듯 예절 바르고 싹싹한 처녀는 처음 본다고 모두들 입에 침이 없이 말하였다.

◆ 그 사람은 말씨가 매우 싹싹하고 태도가 활달해서 사귀기 쉬운 사람이란 인상을 주었다.

◆ 성미가 싹싹한 철순이는 별로 성내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대범한 웃음으로 그 자리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려 버렸다.

◆ 내가 이내 그들의 앞으로 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니 두 사람은 팔짱을 빼고 답례하는데 매우 공손스러웠다.

◆ 부접이 좋은 성품.

◆ 테설곳은 성미.

◆ 상냥스럽고 자상한 사람.

◆ 차분한 성미.

◆ 불임성이 좋아 보이는 젊은이.

◆ 입안의 헛바닥같이 고분고분한 성미.

◆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성미.

#### 4. 곧고 대바름

◆ 강직한 성품.

◆ 형사 놈의 갖은 고문에도 강직한 김 노인은 의연하게 버텼다.

◆ 이 나라 어머니로서 강의한 심정이 가슴에 깊이 깃들어 있는 어머니는 원수의 모진 채찍 앞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성실하고 결이 바른 사람이었다.

◆ 대쪽같이 결이 바르다.

◆ 그는 심지가 무척 곧은 사람이었다.

◆ 해성이는 천성이 고지식해서 심보가 그른 짓은 하려 하지 않았다.

◆ 고지식한 치선이는 춘학이의 말을 정말로 끝이들었다.

◆ 그 사람은 대가 바른 사람인데도 뱀을 부리기 시작하면 견잡을 수 없었다.

◆ 그는 목 곧은 사람이어서 남에게 호락호락 굽혀들려고 하지 않았다.

◆ 거짓말이라고는 모르는 바른 사람.

◆ 그는 부지런하고 동정심 많고 경위 밝으며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느니, 참된 미덕을 갖추고 있는 농촌 처녀이다.

◆ 그들은 언제나 정직한 심정과 생활의 진실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꾸밈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집단의 주인입니다.

◆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인 그는 자기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하여도 남에게 자랑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 허허 하고 웃어버리면 그만일

것을 영호는 한 마디 한 마디 따지고 들어 농담을 건 군상이가 무색하게 되었다.

◆ 먹은 뜻을 굽히지 않는 그는 무슨 일에 들어서나 어기차게 해내고는 하였다.

◆ 그는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었다.

◆ 칼날 같은 성미.

◆ 혁명가의 아내와 어머니들이 다 그러한 바와 같이 그의 어머니도 한평생 모든 것을 혁명이라는 큰 사업에 송두리째 바치면서 살아온 깨끗하고 지조 높은 어머니였다.

◆ 할머니도 사위의 마음이 대결같이 바르고 깨끗하다는 것을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 네 아버지 같이 꼬장꼬장하고 대결 같은 사람이 그런 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계셨겠니?

◆ 직심스러운 사람.

◆ 봉임이는 꼬챙이 같은 남편의 직심을 두려워하였으나 한편 마음속으로 그를 몹시 존경하였다.

◆ 최 동무는 직심이 대단해서 그



힘한 강바닥의 자갈밭을 혼자 손으로 기어이 논을 만들어 냈다.

◆ 경위 밝고 대바르고 인정 있는 사람.

◆ 본시 결패(우물쭈물하지 않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는 패기나 결기)가 있는 우일이는 첫마디부터 흥분하여 커다란 손을 쥐었다 폈다 하였다.

◆ 대나무같이 꺾끗하고 결패 있는 사람.

◆ 경위가 틀리면 작두날에도 올라서는 사람.

◆ 맨발에 작두날이라도 올라설 정도로 강직한 사람.

◆ 직사포 같은 성미.

◆ 칼날 같은 성미.

◆ 말뚝같이 곧은 사람.

##### ⑤ 참되고 순진함

◆ 진실한 사람.

◆ 참된 인간.

◆ 이들이야말로 참된 투사이며 우리의 우수한 아들딸들인 것이다.

◆ 부모들은 누구나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 사람이란 그저 착하기만 해서 는 부족하며 사회의 악을 반대해서 결연히 싸울 줄 알아야 한다.

◆ 나는 형숙이의 이번 행동을 통하여 그의 바다처럼 깊으면서도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한 것이 기뻐다.

◆ 내가 경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묻는 말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수줍은 처녀였다.

◆ 할머니와 형님 앞에서 아주머니는 자기의 통통한 발등을 치마 속으로 수줍게 감추었다.

◆ 봉필은 우뚝통하게 생긴 50대의 순박한 농민으로 대쪽 같은 결기를 가지고 있었다.

◆ 신철이는 제법 솜씨가 좋아서 처음 만난 아이들과도 한테 어울려 잘 놀았다.

◆ 덕성이와 한자리에 앉은 봉희는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바늘로 자기 손끝을 헛찌르기만 하였다.

◆ 그에게는 벌써 소녀의 천진난

만한 솃티와 농촌 처녀의 솃진 성미가 없어진 것 같았다.

◆ 철수는 며칠 사귀는 사이에 벌써 봉길이가 사업에 열렬하며 실다운 동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한낱 평범하고 가난한 농민인 봉팔 노인은 마지막까지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조국 해방의 한 주춧돌이 되었다.

◆ 순진한 마음.

◆ 형태는 순진하고 일에 부지런한 귀염성 있는 청년이었다.

◆ 매파를 각처에 보내어 현숙한 여자를 구하더라.

◆ 양심이 거울 같은 사람.

◆ 마음이 수정과 같이 맑다.

◆ 아련하고 순박하고 마음 어진 농촌 처녀.

◆ 호박꽃같이 순박한 처녀.

◆ 환자에 대한 그의 뜨거운 애정은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정신이었다.

◆ 조국의 내일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한 그는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추호도 굴하지 않고

고결한 지조를 지켜왔다.

◆ 결백한 마음.

◆ 점점 자라나며 그의 아름다운 모양과 소박한 성품과 단아하고 결백한 풍채는 어떤 풍상에도 굽히지 않는 그 선열들의 고상한 전통을 계승한 듯하였다.

◆ 흰 눈처럼 깨끗한 마음.

◆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 백옥같이 맑은 마음.

◆ 결국하고 청백한 마음.

◆ 샘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스러운 마음.

◆ 어머니의 성품이 활달한데 건주어 영육이는 그와 반대로 내향적이고 유순하다.

◆ 순결한 마음.

## ⑥ 순하고 무던함

◆ 형식이 높음 얼굴도 귀인성스러울 뿐 아니라 영리하고 고분고분해서 귀염을 받는다.

◆ 우리 동네에는 무던한 처녀 애들도 많다.

◆ 형이 그악하고 아우가 무던하

다는 것을 이웃이 다 아는 바였다.

◆ 덕준이는 순하기 이를 데 없고 누가 무엇이랴 해도 좀처럼 성내는 일이 없었다.

◆ 세 동무는 모두 순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 숙희는 은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 했고 특히 그의 수련한 미덕을 본받으려고 하였다.

◆ 이 집 아들은 수더분한 게 첫눈에도 귀인성 있어 보였다.

◆ 그 듄직하고 수더분한 청년은 어린 길남이를 무척 귀여워했다.

◆ 안존하고 색시 같은 사람.

◆ 정식이는 원식이와 달라서 성미가 안존하고 자상한 편이다.

◆ 그는 상금이를 첫눈에 얹전한 색시로 보았다.

◆ 준호는 한 마디 대꾸도 못하고 서 있던 얹전한 성희를 두고두고 생각했다.

◆ 새댁은 외모도 복스러우려니와 마음이 또한 어리무던(별로 흠잡을 데가 없고 무던하다) 하여 날이 갈수록 시집 식구들의 사랑을 받았

다.

◆ 그는 온순하고 입이 무거운 여자였다.

◆ 우리들은 이 불송이 같은 열렬하고도 애련한 청년에게 성원을 보내는 마음이 한없었다.

◆ 어질고 수더분한 아낙네.

◆ 이웃집 수돌이는 언제 보아도 덕성스럽고 귀여웠다.

## ⑦ 약고 영리함

◆ 그는 눈치 빠르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 영리한 아이.

◆ 조카는 아주 영리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온 집안에서 귀염을 받고 있다.

◆ 그렇게 힘든 일에서 벼돌기 잘하고 매끄럽던 성철이가 요즘은 아주 판 사람이 되었어!

◆ 영남 어느 촌에 산다는 그는 비록 시골 색시일망정 슬금한(슬기롭고 너그럽다) 여자라 도적의 급한화를 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꾸밀 생각이 났다.

◆ 사람들은 동무와 같이 슬기롭고 용감한 당신을 매우 존경하고 있소.

◆ 영수는 꽤 반지러운 사람이야.

◆ “너 이런 것을 보았느냐?” 하고 할아버지가 일부러 엄숙하게 물었으나 축기 빠른 소년은 벌써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 그는 잔피가 많은 영순이에게 넘어가 감쪽같이 속고 말았다.

◆ 약은 사람.

◆ 그의 지금까지 재산도 생쥐같이 약고 다람쥐처럼 인색한 데서 모은 것이 아닌가.

◆ 응천이가 원래 참새 굴레 씌우게 약아서 속지를 앓았다.

◆ 정남이는 본시 입이 싸고 심사가 약삭빠른 사나이다.

◆ 대문에 서 있던 보초 놈과 약삭빠른 한두 놈이 도망쳤을 뿐이었다.

◆ 그같이 역은 수길이라도 눈치 있고 피바른 칠남이한테 손을 들고 말았다.

◆ 역빠르기로 이름난 명근이는

되지 않을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상책이라고 입에 침을 발라가며 떠들었다.

◆ 그는 머리가 총명해서 한 번 들은 일은 잊어버리는 일이 적었다.

◆ 아들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버지도 똑똑하신 분이군!

◆ 사실 봉호는 금방 샘물 속에서 건져놓은 곱돌과 같이 정갈하고 똑똑한 청년이다.

◆ 그 처녀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상냥하고 성내는 법이 없다.

## ⑧ 아무지도 찬찬함

◆ 다라진 옥련이는 어지간한 일에 놀라거나 당황한 빛을 보이는 법이 없었다.

◆ 종수는 키가 작고 다기진 데다가 성미가 매우 급했다.

◆ 영순이의 나이는 겨우 열여섯 살이나 다기차고 눈치 빠르고 믿음성 있는 소녀였다.

◆ 작달막한 키에 절구통같이 다부지게 생긴 그는 50고개를 넘었으나 일손이 세차서 웬만한 일에는 힘

든 줄을 몰랐다.

◆ 점순이는 열여덟 살로는 몸이 작은 편이나 뒤통이가 본시 다부지고 또 번쩍거리는 눈매가 갈수록 영채 도는 것 같았다.

◆ 인국이는 나이가 어리고 몸집도 작지만 사람이 당차고 다기졌다.

◆ 결국한 성미.

◆ 차근차근한 성미.

◆ 무슨 일을 하나 빈 구멍이 나지 않게 면밀하게 살피는, 언제나 차근차근한 동무였다.

◆ 원래부터 찬찬한 성미인 황 의사는 자세하게 진찰을 끝마치고 신중한 표정으로 처방을 썼다.

◆ 키가 크고 건장하며 성격이 침착하고 언사가 조용하며 논리가 서있다.

◆ 까근까근한(간간한) 성미.

◆ 동무들은 영옥이가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 간진 성미에 결코 그대로 단념하여 버리는 앓으리라고 말하였다.

◆ 가름하고 해맑은 얼굴, 작은 입, 맑고도 빛나는 두 눈, 오흘한 콧

날, 호리호리한 키 이 모든 것이 펍상냥스러워 보였고 또 깔끔해 보이는 여자였다.

◆ 이런 빨래 솜씨 하나만 보더라도 그 여자의 깔끔한 성미를 알 수 있었다.

◆ 그 사람은 워낙 성질이 끈질끈질 해서 일에 실수도 없지만 어떤 때는 결의 사람이 갑갑한 정도로 굼뻤다.

◆ 계집애들이란 저렇게 꼼꼼해! 담배씨로 뒤웅박을 파겠다.

◆ 분이는 여간 안찬 사람이 아닌데도 이때에는 머리가 쭈뻛해지면서 겁이 더럭 났다.

◆ 야무지고 당돌한 그의 모양은 꼭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 신봉필 영감은 키가 작고 몸이 호리호리 하며 얼굴이 가름하고 가무잡잡하다. 아주 여무지게 생기고 겁이라고는 모르는 답이 ‘동이’만한 용감한 노인이다.

◆ 울콩볼콩 여물다 하니 시동생처럼 여물다.

◆ 몹시 아무지고 오달진 경일이  
는 언제나 남의 앞장에서 힘차게 일  
하였다.

◆ 침착하고 아량이 깊은 사람.

### ⑨ 경솔하고 싱거움

◆ 경솔한 사람.

◆ 상도는 어릴 적부터 경박하여  
진중한 데라고는 없었다.

◆ 은희와 길용이는 성격도 서로  
달라서 길용이는 가벼운 편이지만  
은희는 무거운 편이며 길용이는 얼  
굴에 잔피와 잔재간이 있는 사람이  
지만 은희는 맑은 하늘을 안은 호수  
처럼 잔잔하고 은근한 사람이었다.

◆ 그의 성격은 꼼꼼하지 못하고  
데설곳은 편이다.

◆ 종섭이는 그에게 일을 맡기면  
서도 속으로 데면데면한 그가 실수  
나 하지 않을까 하여 몇 번이고 “침  
착하게 잘 하시오” 하고 뒤를 눌러  
주었다.

◆ 성호는 이런 싱거운 사람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줄 알자 말을  
끊고 말았다.

◆ 성품이 진중하지 못한 그는 복  
동이의 점잖고 무게가 있는 성격을  
부러워하였다.

◆ 허수한 성품.

◆ 허랑한 성격.

◆ 너무 실없이 웃으면 사람이 헤  
석어 보이며 남에게 믿음성을 주지  
못하는 법이란단.

◆ 그 여인의 마음이 헤퍼서가 아  
니라 워낙 후덕하고 남의 딱한 사정  
을 보고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어  
서 그랬던 게지.

◆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아주머  
니는 봉수를 보더니 그가 말할 사이  
도 없이 “도련님, 참 이쁘기도 하네.  
코와 눈도 잘 생기고……” 이렇게  
반죽 좋게 말하는 품이 여간 수다쟁  
이가 아닌 것 같다.

◆ 그는 나에게 어디 약혼한 여자  
가 있느냐, 집에 누구누구 있느냐 따  
위 수다를 부리며 경망스럽게 군다.

◆ 이 사람아, 자기 계획도 제대로 다 못하는 주제에 남을 도와주겠  
다니 너무 희뻘게 놀지 말게.

◆ 그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이 경

망해 보이고 진중한 맛이 없었다.

◆ 그의 성품은 얼핏 보기에는 잘  
고 경망스러웠으나 지내보니 입이  
천근같이 무거웠다.

◆ 술덤병물덤병 하는 사람.

◆ 춘회는 너무 덤병거려서 어머  
니에게 가끔 꾸중을 듣고는 한다.

◆ 보기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왜  
이리 침착하지 못하고 덤병일까?

◆ 덤배북청(북청 물장수처럼 아  
무 데나 덤비다) 같은 사람.

◆ 데먼데먼한 사나이.

◆ 굴레 벗은 말처럼 팔팔하고 무  
모하다.

◆ 술에 물 탄 것처럼 덤덤하고  
싱거운 사람.

#### ⑩ 팔팔하고 급함

◆ 곧 울 줄 알았던 아들이 오래  
도록 오지 않아 어머니는 겹겹한 성  
미에 곧 쫓아가 보고 싶은 것을 억  
지로 참고 있었다.

◆ 급급한 마음.

◆ 저 애는 성미가 너무 급해서  
야단이야.

◆ 그는 그곳으로 곧 뛰어가고 싶  
었으나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날 밤을 거기서 지냈다.

◆ 과격한 사람.

◆ 그의 팔팔한 성미로는 본인을  
당장에 불러다가 욕이라도 퍼붓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었다.

◆ 성학이의 팔기(성질이 세고 급  
한 기세)는 인왕산 솔가지야.

◆ 그는 형보다 더 정열에 불타고  
더 성급한 편이었다.

◆ 그는 무엇이나 자기가 생각하  
는 대로 말해버리는 성격이다.

◆ 불같은 성미.

◆ 성질이 진득지 못한 고분이가  
대뜸 불만을 발설했다.

◆ 그는 성미가 꿈꿈하면서도 급  
하고 팔팔하여 화약처럼 붙어 오르  
기 잘하는 사람이었다.

◆ 아주 걸걸하고 호협한 인품.

◆ 그는 본시 의협심이 있는 사람  
이라서 마음에 거슬리는 일은 그대  
로 두지 못한다오.

◆ 그는 남의 소작살이를 하는 가  
난한 처지에서도 이웃 간에 굶는 집

이 있으면 자기 집 뒤주의 바닥을  
긁어서라도 함께 나눠먹는 의협한  
사람이었다.

◆ “대장! 저는 진득이 앓아 배기  
지 못하는 성미라 좀 땀을 흘려야겠  
어요. 공장을 가고 싶어요.” 춘삼은  
재차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 작은 일에도 격하기 잘하는 용  
국이가 예전 같으면 벌써 몇 번 주  
먹을 휘둘렀을 것인데 오늘은 잠자  
코 앉아 있다.

◆ 황 주시는 옥하는 마음에 다짜  
고짜 장기판을 책 밀어버렸다.

◆ 우뚝우뚝하는(옥하는) 성미.

◆ 그것은 덕실이 말이 옳다! 나  
이도 그 애가 한 살을 적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성미가 왁살긋어서 선  
동이와는 안 맞을 거다.

◆ 경애가 워낙 성격이 쾌활해서  
그렇지. 그렇게 말괄량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에요.

◆ 그는 사람됨이 본시 남이 한  
술 뜨면 저는 두 술 뜨자는 왈패였  
다.

◆ 왈짜 같은 여편네.



## 동물과 나누는 마주이야기

増井光子(마스이 미쓰코) 일본 수의사이자 동물원 원장.

《동물과의 대화》책에서.

### 동물과 이야기하기 위한 규칙

#### 동물을 이해했다면 벗이 되기 위한 실천으로

“당신도 동물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책의 첫머리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동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대강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태와 심리 또는 언동을 아는 것이 곧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동물은 이런 성질이 있으며, 이런 표정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해도 현실에 직면하면 각본대로는 되지 않는 법이다.

보기를 들면, 식구들과 같이 즐거운 소풍 갔을 때 우리는 귀여운 동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야생 동물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 동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사람도 대부분 평소 하는 말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동물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왜 그런 결과로 되는 것일까? 과장해서 말하면 이론에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중요하나, 많은 동물들과 직접 다가가는 것이 그들과 벗이 되고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부디 알아두기 바란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만나는 뚜렷한 방법에 대하여 내

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우선 기본으로 가지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하여 간추리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들 수 있다.

① 동물의 생활을 혼란하게 하지 말 것.

② 동물의 힘을 알 것.

③ 동물을 무서워하지 말 것.

④ 동물을 놀라게 하지 말 것.

⑤ 말을 걸 때는 조용히 말할 것.

이것들은 주로 야생 동물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다. 다음에 애완 동물이나 가축에 대하여 말하면,

① 밥 먹는 것을 돌보고 산책도 자주 시켜줄 것.

②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

③ 쓰다듬기를 중시할 것.

다음에 이 원칙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집을 쳐들어 온 것은 너구리인가  
사람인가**

만일 당신 집의 정원에 야생 다람쥐가 들어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 잡아서 장 속에 넣으려 할까? 아니면 형편을 살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야생 동물을 그대로 두지 않는 성질이 있다. 큰 소동을 피우며 쫓아가 잡아서 장이나 광주리에 넣지 않으면 성이 풀리지 않는다.

정원에 나타난 야생 다람쥐를 장작으로 던져 떨어뜨리고, 떨어진 것을 개를 풀어 잡아 가지고는 의기양양하게 동물원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 왜 그대로 두지 못할까? 이런 꼴을 당한 동물은 충상을 입거나 큰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쇠약해 있어서 동물원에서 말아 길러도 죽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생명의 손실을 본다.

또 봄철에는 오리도 수난을 겪는다. 청둥오리나 흰뺨검둥오리는 하천에서 알을 까는데, 알을 깔 때 오리들은 예상외로 물에서 먼 곳에 둥우리를 만든다. 물가라기보다, 산 속 같은 데에서 새끼를 까는 것이다. 그 다음 어미 오리는 많은 병아리를 거

느리고 물가로 여행을 떠난다. 그 도중에 사람에게 들키면 재난을 당한다.

“새끼 오리가 있다! 와아!” 하고 온 식구가, 아니 온 동네 사람이 총동원하여 오리를 둘러싸고 새끼를 잡는다.

산림을 개척하여 이루어진 신흥 주택지에 너구리가 나타났다. 새끼를 거느린 너구리를 잡은 사람은 자기의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니, 집을 쳐들어온 것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적반하장이다.

너구리는 오래전부터 살아온 산림을 불도저로 파괴당하여 마음 놓고 새끼를 키울 곳이 없어서 어물대고 있었으리라. 너구리가 만약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이야말로 너구리에게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함부로 정원에 들어왔지 않았는가? 집을 쳐들어온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다!” 하고 항의할 것이다.

그밖에 항구에 돌고래나 쇠물돼

지(상괘이)가 나타나면, 잡으려고 소동을 피우고, 어떻게든지 잡으려 하거나 몰살시키고 만다. 만약 그들이 항구에서 살게 되어 배의 안내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유럽에서는 배 안내를 하여 사랑받는 바다표범과 돌고래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보는 대로 몰살시키고 만다.

왜 야생 그대로 동물을 보지 못하는가? 왜 들에서 사는 자들의 생활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교란하려고 하면, 응당 보복하려는 동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활을 교란당하는 것은 사람이다. 아니 생활뿐 아니라 생명마저 보장받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서로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 공존공영(함께 잘 살아감)이야말로 동물과 사귀기 위해 지켜야 할 일의 제1조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동물들의 관찰(살피는 눈)은 날카롭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저쪽은 그보다 주의 깊게 우리를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나타나자마자 동물이 재빨리 달아날 때가 있을는지 모른다. 이쪽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당신을 전부 신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가만히 있으면 그들도 무척대고 숨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아, 저 키가 큰 동물은 우리의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물들은 침착해져서, 어느 때와 같은 생활을 다시 영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도 동물들이 달아나려 하거나 어름거리며 경계하는 표정을 띠면 그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적의를 품고 있다고 기민하게 판단하면, 순식간에 자기도 같은 감정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이쪽이 불안 또는 분노의 눈빛이나 표정을 하면 그들도 불신감을 품고 적의마져 보인다.

## 사람과 공존하는 에티오피아의 하이에나

그런데 공연히 간섭하지 않고, 야생 동물들을 찬찬히 관찰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절실히 전달되어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동우리를 만드는가? 아기를 어떻게 기르고 교육하는가? 주위의 자국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음식은 어떻게 입수하는가? 따위 감탄스러운 일들 뿐이다.

더욱이 당신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주면 동물들은 곧 경계심을 풀 것이다.

그러나 야생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 동물들이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며 야생 동물다워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물들이 사람의 생활에 깊이 간여하여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먹이를 자주 얻어먹는 사이에 사

람을 따르게 된 동물들은 모든 사람이 선의를 품고 있는 줄 알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고 하고, 논밭을 망쳐 놓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길들여진 탓으로 사람에게 잡히고 만다.

동물의 생활에 함부로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고, 사람의 생활에 동물이 깊이 끼어들어도 곤란하다. 서로의 분수를 알고 적당한 선에서 사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에 참새들을 위하여 한 조각 돼지비계를 나뭇가지에 꽂아두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다. 체코의 타트라 산악 국립공원에서도 사모아를 위하여 겨울철 모이가 모자랄 때에 대비하여 나뭇가지를 저장해 두는 오두막이 여기저기에 있고, 폴란드 비아로워자의 바이스 보호구에서도 겨울철에는 일정한 곳에서 바이슨들에게 먹이를 보급해 준다.

앞으로 야생 동물이 야생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원조해 줄 필요가 있게 될는지 모른다. 가마꾸리(鎌倉)

의 ‘라면 너구리’ 같이 말이다.

이 너구리 역시 산림에서 쫓긴 너구리인데 한 농가에 그 집 아주머니가 호의로 주는 라면을 먹으러 밤마다 오는 것이다. 만일 라면만으로 그 너구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무슨 사고가 나서 그 라면의 보급이 끊기자마자 너구리들은 굶어야 하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조에 전부 의지하지 않더라도 야생 동물이 그들의 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부디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뒤에 벗으로서 사귀어야 한다.

야생 동물이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하기 쉬우나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첫째로 동물들이 하루에 얼마만한 거리를 걸어 다니며, 얼마만한 음식을 먹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야생 동물의 생활권은 차츰 밀려나고 있으니 넓은 국정 공원과 보호구를 설치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

장해 주지 않으면 장차 우리와 가까운 꿈이나 너구리도 땅 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서로 무관심하면서도 각자가 자기의 처지를 알고 공존하고 있는 보기를 나는 에티오피아에서 본 일이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얼룩하이에나가 많다. 세렝게티의 얼룩하이에나는 ‘크란’이라 하는 집단을 만들며, 크란 안에는 통제가 되어 있어서, 그들은 규율 잡힌 생활을 하고 있다. 얼룩하이에나는 사자들이 먹다 남긴 뼈도 먹으나 보통은 저희들의 손으로 토끼, 일런드, 임팔라, 톰슨가젤, 그랜트가젤, 하테비스트 따위 작은 산양들을 잡아먹고 산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하이에나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다. 그들은 나날이 양식의 대부분을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이에나는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한다.

내가 묵은 다나킬 사막의 작은 마을 중 하나인 로기아 마을 여인숙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인숙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서도 밤중에 얼룩하이에나와 들개의 떼거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곁으로 철망 한 장을 사이에 둔 마을 오솔길을 으르렁거리며 커다란 짐승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난한 집의 처마 밑에는 마을 사람들이 흰 천을 한 장 두르기만 하고 땅바닥에 누워 자고 있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하이에나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고, 얼룩하이에나들도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았다.

하이에나는 체중 50~60kg이나 되는 커다란 육식 동물인데, 그들의 이빨은 사자가 먹다 남긴 뼈마저 씹어 먹을 만큼 단단하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얼룩하이에나를 어릴 때부터 늘 보아 왔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는커녕 불결한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차와 같이 쓸모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여

기서는 하이에나도 사람도 서로 상대방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 수컷고릴라는 직경 25mm의 철봉을 구부린다

“여러 가지 동물을 만지시는데 무섭지 않나요?”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물론 나도 아주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며, 또 무턱대고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병과 상처를 정성껏 고쳐주려고 애써도 이쪽의 정성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대체로 동물들은 모두 의사를 싫어한다. 가뜰이나 병들어서 괴로운데 거기에다 아픈 주사를 놓으니 질색일 것이다. 당연히 치료할 때는 죽을힘을 다해 저항한다. 이빨이 날카로운 놈은 물려고 하고, 발이 튼튼한 놈은 힘껏 차려고 한다.

그럴 때 상대방의 유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적은 그 무기를 휘두르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선 계산에 넣어야 한다. 상대방의 힘을 충분히 계산하고 나서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개체에 따른 습성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저놈은 화를 잘 낸다든지, 암전하다든지 말이다. 무엇이건 정체를 모르는 상대는 무섭다.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인도코끼리를 기르고 있는가와 구찌 유끼오(川口幸男) 씨가 전에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다.

“코끼리의 코가 어디까지 뻗는가, 발을 들면 어느 근처까지 닿는가를 언제나 주의해서 계산해 둔답니다.”

그것은 코끼리를 다룰 때뿐 아니라 모든 동물을 다룰 때에도 해당된다. 침팬지의 손가락 하나 힘이 어느 정도로 센가, 오랑우탄의 악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칫 약속했다가 손을 당기면 큰일이다.

침팬지는 손가락으로 끼는 힘이 센 것으로 정평 있는 동물이다. 또

체중 60kg의 암컷오랑우탄은 직경 1cm 철봉을 비트는 힘을 가지고 있다. 200kg의 수컷고릴라는 직경 2.5cm, 길이 30cm의 쇠창살을 쉽게 구부린다. 또 도움닫기를 한 호랑이가 두께 1cm나 되는 강화유리를 박치기로 깰 일도 있다.

물론 그들은 노상 그런 힘을 발휘하거나,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습격해 오는 것은 아니다. 조용하게 사귀는 한 안전한 법이다. 그러나 사람이 미처 모르는 무언가 원인이 되어 그들이 미친 듯 날뛰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 도둑이 개에게 꼬박 못 하는 까닭

길을 걷다가 저쪽에 커다란 개가 누워있는 것이 보인다. 순간 짖으면 어찌나 하고 겁에 질린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개가 정말 짖어 대어서 곤경에 빠진 일은 없는가? 그리고 무서워할수록 개는 더욱 짖어대며

바짝 가까이 온다.

동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마음 움직임에 민감하다. 이쪽이 무섭다든지, 이 동물은 싫다든지 하고 생각하면 아무리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 해도 눈치채고 만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에 대응하여 몸을 도사리거나 반대로 앞잡아 보고 덤벼든다.

상대방의 감정을 간파하는 것은 동물만의 특기는 아니다. 사람끼리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설사 일본말을 모르는 외국인 앞에서도 나쁘게 말하거나 놀려주는 말을 해서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분위기로 알아채는 것이다. 웃음소리만 해도 즐거워서 웃는 것과 비웃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을 여행해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일이다. 그런 때에는 이쪽도 목숨을 건지라 상대방의 행동에서 뜻을 알아내려고 하는 동물 같은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리라.

개가 짖는 바람에 이쪽이 주춤하면 더욱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



어 쫓기기까지 한다. 도둑이 개한테 꼼짝 못 하는 것도 마음속에 잠재한 양심이 개가 짚는 바람에 당황하고 그것이 태도에 나타나서 더욱 개에게 의심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동물들은 상대방의 역량을 재빨리 간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공격하면 저쪽이 달아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여느 때와는 다른 마음의 움직임이 상대방을 경계하게 만든다. 되도록 무심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우리 같은 범부는 애석하게도 도사같이 태연자약할 수가 없다.

동물에 대한 공포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동물에 대한 무시가 한 가지 원인이다.

최근 도회지에서는 소, 말은 고사하고 개나 고양이도 만족스럽게 기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동물을 보고 싶다, 알고 싶다는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한다. 그

래서 동물 관련된 책이 가게 앞에 많이 나와 있고, 텔레비전도 자주 방영하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으로 크기의 실감을 파악할 수 없고, 도감으로 지식은 흡수할 수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어서 따스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동물원에 온 어린이가 코끼리나 기린을 보고 이것은 코끼리와 기린이 아니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진다.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텔레비전이나 사진만으로는 어린이가 기성관념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역시 실물을 보이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무심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 이 무심함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두세 가지 이야기해 두자.

지금부터 십여 년 전, 우에노(上野) 동물원에 ‘얏짱’이라는 정신박약자가 종종 왔다. 얏짱은 동물을 아주 좋아했으며 그중에서도 침팬지 ‘수지’를 무척 좋아했다.

“수지는 귀엽구나” 하고 말하는 앓짱의 모습에는 참으로 그 이외의 감정이 없었으리라. 물론 수지도 순박한 앓짱의 호의에 부응하여 남달리 따랐다. 또 앓짱은 동물원의 동물들 중에서 매우 사나워서 사육사도 애먹는 동물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앓짱은 상대방을 무서워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다. 어떠한 동물 곁에도 태연히 다가갔다. 앓짱의 태도에는 도사리는 품이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동물들도 앓짱에게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이는 그런 점에서 아주 무심히 동물과 만나고, 때로는 아주 친밀해질 때가 있다. 하긴 어린이는 장난기도 심해서 동물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태연히 한다. 어른의 올바른 지도가 없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약한 동물이면 뜻하지 않게 죽고 마는 일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할퀴거나 물리는 경우도 있다.

## 플래시보다 셔터 소리를 싫어하는 동물들

동물들은 뜻밖에도 보수적이어서 커다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갑작스럽게 울리는 커다란 소리와 커다란 몸짓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놀라게 한다. 동물들의 처지에서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달리거나 뛰거나 하면 그것은 무슨 위급한 사태가 닥쳐오고 있다고 느낀다. 야생 동물들은 평소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논다. 그들이 서두는 것은 위험이 닥쳐와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거나 먹이를 잡을 때이다.

그러니 당신이 생각 없이 그들 앞에서 급작스레 팔을 휘두르거나 뛰어오르거나 달리거나 하면 그런 동작만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히 경계심을 일으키고 만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그리고 커다란 소리를 낼 때도 조심해야 한다. 야생 동물의 사진을 찍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인지 플래시에

는 놀라지 않는다. 예컨대 갓상(月山)에서 너구리를 사진 찍을 때의 일이다. 너구리들은 플래시가 몇 번 번쩍여도 태연했고, 날다람쥐를 찍으러 갔을 때도 그랬다. 뻔뻔스럽게도 가지에 앉은 채 번쩍번쩍 빛나는 플래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날다람쥐도 있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에티오피아의 하이에나도 플래시에 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으며 세렝게티의 하이락스(바위너구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점은 내가 여태껏 들어온 것과는 매우 다른데, 야생 동물들은 플래시를 일종의 번갯불인 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빛에 대해서는 태연해도 소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였다. 찰깍 하는 셔터 소리에 거의 모든 동물들은 펄쩍 놀라며, 족제비는 황급히 달아난다. 그리고 사소한 몸짓에도 경계한다.

흔히 동물을 관찰할 때는 돌이 되라고 한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꽤 가까

운 데까지 다가가서 상대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돌로 둔갑해 있으면 일본족제비는 바로 발치까지 다가온다. 일본족제비가 나오는 오두막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로는 “발에 매달리기까지 한다우. 정말 귀엽지 뭐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육되어 있는 가축에게도 해당된다. 우당탕탕 바가지를 던지거나 문을 탕 닫거나 하면 그때마다 동물은 펄쩍펄쩍 놀란다. 동물과 사귀려면 침착하게 조용히 행동하여야 한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편집부

### 자유를 향한 행진(자유에의 행진)

에드 클레이튼

지문사, 이상영 옮김

### 5. 소년 시절 - 중오의 그림자

#### ■ 중오는 성장하고(머물은 자라나고)

어린 마틴 루터 킹 2세는 침례교 신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다소곳이 서 있었다.

무척 가냘픈 데다 키가 작은 소년의 귀는 유난히 커 보였다. 그의 얼굴은 귀여운 검둥이었다. 그는 높은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진 네 살짜리(짜리)의 천사 그대로였다. 이 아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노래를 시작했다.

‘나는 더욱 더 주님을 닮기 바라

네(원하네)’라는 찬송가는, 어린 마틴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였다. 노래의 소절이 끝날 때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멘을 합창했다. 어린 마틴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노랫말(가사)에 감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신이 나서 노랫말을(가사를) 정확하게 전하려고 했다. 이것이 말 이(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중요한 것인 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때였다.

그 뒤(후) 어느 일요일 아침, 옹니저 침례교회에서 아버지가(아버지의) 설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예배를 드렸다. 아버지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만족과 행복(감)에 빠진(도취된) 교인들의 모습을 또렷이(역력히) 볼 수 있었다. 어린 마틴은 자신도 연설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다는 열망

에 가슴 속이 뿌듯해 왔다. 깊은 생각과(사고와) 조리 있는 설교, 그것에 감동하는 사람들, 이것이 어린 마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말이란(설교도 결국 말이니까) 조리, 지식, 정의, 아름다움, 용기, 사랑,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람(인간)의 삶 자체도 바꿀(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연장(기부)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마틴은 언젠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말했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머지않아 굉장히 훌륭한(위대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마틴은 공부하기를 바랐다(원했다). 그의 나이 다섯 살 때,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기도 입학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여섯 살로 속이고 입학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른들이 한 거짓을 모르고, 동무(친구)들에게 다섯 번째 맞은 생일 이야기를 신나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의 비밀은 드러나고(탄로나고) 말았다. 그의 짧은 등교는 이래서 წყ개되는(기록되는) 학교 경력인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마틴은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그가 관련되어 저지른 맨 처음(최초의) 거짓이었을 것이다.

마틴은 여섯 살 때 ‘훌륭한(위대한) 말을 하려는(구사하려는) 노력’에 큰 상처를 받았다(상처를 주는 일에 부딪혀야 했다). 어찌면 이 일로 그는 더욱 각오를 굳게 다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마틴의 동무(친구) 중에는 잡화점 가게(의) 주인인 백인 집(가정)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 흑백의 차별을 모르고 살던 때(시기)로,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두 백인 동무(친구)와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그대에 동무(친구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화를 내며 마틴과 어울려 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린 마틴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자 동무(친구의) 어머니에게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물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검둥이와 놀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어린 마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아들을(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을 생각하며 어떤 점이 그런 까닭을(이유를) 만들었는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들어오며 어머니를 찾았다. 평소(평상시)와 달리 아들의 얼굴에서 슬픈 표정을 읽은 어머니는 곧 아들을 힘껏 안아준 다음 근심이 있느냐고 물었다.

마틴은 좀 전의 일을 이야기하며 아마 자신이 백인 소년들만큼 착한 소년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여섯 살짜리 아들에게 몇몇(일부) 사람들의 잔인한 일처리(처사)와 앞으로 겪을 더 심한 차별에 대한 이름(교통)을 이야기해 주며 결상(의자)에 앉혔다.

“이 일로 네가 백인보다 착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어떤 착한 사람들만큼 착한 것이 사실이니까 말이다.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알고 계세요, 마틴.”

이런 말로(식으로) 어머니는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인종 차별과 멸시, 천대, 억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린 마틴에게 현실로(현실적으로) 닥쳐온 것이었다. 여섯 살 때 시작된 이 어두운 그림자는 그가 어른으로 자라면서(성장하면서부터) 점점 더 짙게 어둠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후 얼마 동안은 그림자로서만 있을 뿐이지 마틴이 살아가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집의(가정에서의) 삶에는 위협이 될 수 없었다. 그때만 해도 오우번 거리(가)에서 방이 12개나 되는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오우번 거리(가)는 애틀랜타 시(市)의 가장(제일) 변화한 거리(변화가)인 피이스트리 거리(가)와 경계로 그 집부터(집에서부터) 흑인만 사는 지역(흑인 거주 지역)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원래 이 집은 마틴의 외할아버지인 윌리엄 목사가 가졌으나(목사의 소유였으나), 마틴의 아버지 마이클이 윌리엄 목사의 딸과 결혼을 하여 방이 많은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것이다. 가난

한 아버지는 임시로 장인 집에다 살림을 차렸지만 웬지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 이웃에는 킹의 집(가정)처럼 넉넉하게(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통나무로 만든 집,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가난한(빈민한) 집(가정)들이 더욱 많았다.

### ■ 자신(자)을 키우는 검둥이

1930년대 초,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 직장을 잃는 사람(실업자)의 형편이(사태가) 심각해져 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오우번 거리(가)의 집에서는 언제나 고기 음식이 밥상(식탁)에 올랐으며(올려졌으며) 아들딸(자녀)들에게도 주일날 입을 옷과 용돈과 자전거가 주어졌다.

킹 씨(가)의 집(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은 곧 결정이며 믿음이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말은 훈련이며 질서이고 애정이었다.

마틴은 아버지에게서(물론 누나인 윌리 크리스틴과 남동생인 알프레드 다니엘 킹도 함께) 인내와 정직함(성)과 절약, 질서 의식, 예의를

존중하도록 배웠다. 학교에서 하는(학교에서의) 교육은 이로운(유익한) 삶에 대한 열쇠이고, 교회에서 하는(교회에서의) 배움은 도덕스러운(도덕적인) 삶의 열쇠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세 아이는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암기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외운 성경은 저녁 밥상(식탁)에서 소리 내어 외도록(암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루(의) 일과를 가족 기도로 시작해서 가족 기도로 하루의 일을 끝맺는 집(가정)이었다.

벌을 주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방법은 이리했다. 다시 말해(즉) 그분은 저마다(각자가) 서로(의) 잘못을 알면 때로써 그것을 고쳐도 좋다고 봤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매도 좋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마틴은 누나가 잘못을 저질러도 누나(그녀)를 때리지 않기를, 또 남동생에게도 때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맞을 짓을 했다고 인정하면 기꺼이 누구에게나 벌

을 받았다. 마틴이 벌을 받을 때는 두 주먹을 꼭 쥐고 꺾꺾이 서서 받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도 결코 소리 내서 우는 법이 없었다. 이 울곤고(원고하고) 말 없는 작은 소년의 강철 같은 마음은(의지는) 이때부터 돋보였다.

한 번은 알프레드가 누나인 크리스틴을 짓궂게 따라다니며 괴롭히자, 마틴은 동생에게 그러지 말 것을 첫째로(일차로) 경고하고 어째서 그런 것이 나쁜지를(나쁘다는 점을) 알려줬다 (이해시켰다). 그러나 에이디(식구들은 알프레드를 그렇게 불렀다)는 크리스틴이 울음을 터트릴 때까지 못되게 굴었다. 마틴은 참고 보다가 결국은 전화기를 들어 에이디의 머리를 후려쳤다. 한 번 세계 맞은(이 한 번의 강타로) 에이디가 기절을 하자 그는 찬물을 퍼다가 얼굴에 부었다. 그러자 에이디는 깨어나서 사과를 했고 그 뒤 (후)부터는 크리스틴도 마틴도 괴롭히지를 않았다.

마틴은 강철같이 공부에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으로(성미로)

자라났다. 또한 운동도 남에게 지기를 싫어했다. 집 벽에다 농구공을 튀기며 놀다가 가까운(근처의) 아이들을 위해 뒤뜰에다 농구 경기장을(코트를) 만들었으며, 뒤뜰에서 이어지는 들판에는 손수(직접) 야구장을 만들어 아이들과 어울렸다. 그는 어떤 운동이든 자기가 하고자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자신 (감)에 차서 살았다.

마틴의 동무(친구)들은 그의 그런 행동을 보며,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다. 억척스럽게 덤벼드는 성격 때문이었다. 그 좋은 보기(예)로, 한 번은 에이디가 타석에 들어섰다. 포수(캐치)는 마틴이었다. 그런데 에이디가 공은 치지 않고 방망이로 마틴을 때려 그는 잠시 기절을 한 것 같았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디가 투 스트라이크에서 스윙이었으니 아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자(관철되자) 다시 (재차)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다.

마틴은 그의 설득력 있는 논법으로 말다툼(언쟁)에서 상대를 억누르는



(제압하는) 슬기로운 소년이었지만, 이 따끔(간혹은) 힘으로 상대를 때려눕혀야 될 때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필요치 않은 곳에서는 선불리 힘을 쓰지 (사용하지) 않았다.

언젠가 마틴은 학교에서 문제아인 블랙 빌리와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는 블랙이 때리는 대로 막지도(방어도 하지) 않은 채 얻어맞고만 있었다. 남이 보기엔 마틴이 겁에 질려 블랙에게 덤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에이디는 화가 치밀어 도대체 어째서 그런 녀석에게 맞기만 했냐면서 자신이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그에게 가려 하자, 마틴은 엄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동생에게 호통을 쳤다.

잔디밭에서(잔디밭에서의) 블랙과 싸움(블랙과의 싸움) 때 왜 이 용감한 소년이 그냥 맞고만 있었을까? 과연 이 소년이 겁을 먹었기 때문일까? 블랙 빌리의 사정없는 공격에 어쩔 줄 몰랐기(당황했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마틴은 이랬다. 정당치 못한 일에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거루

는(대결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신념에서였다. 그래서 동생이 복수하겠다는 것도 말렸던 것이다. 어쩌면 이 일이 그의 평생(생애)에서 그의 틈난(유명했던) 폭력 없는(비폭력) 운동의 첫 번째 실천이 아니었는가 모르겠다.

마틴의 발이 페달을 밟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자전거를 사주었다. 그는 가까운 곳을 갈 때도 늘(항상) 자전거를 탔다(이용했다). 한 번은 트럭과 부딪혀 뒷바퀴가 터지고 자신은 공중에 뿔뿔이 떨어져도 별떡 일어나 그 고장 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달려오는 그런 소년이었다. 이것이 맨 처음(최초의) 사고였다.

마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으면 알론조 존스의 집으로 전화를 하고는(하곤) 했다. 알론조의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았는데, 마틴은 알론조의 어머니(그녀)가 만든 검은눈 완두콩 요리와 호박 채소(야채)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다. 알론조와 마틴은 어울려 다니며 여러 가지 놀

이를 했다. 어린이에게 맑은 공기와  
조용하고 푸르른 숲은 정서를 피어  
나게 하거나(정서적으로나) 어른(성인)으로  
크는(성장하는) 데 있어 깨끗한(순수한) 감  
정을 갖게끔 하는 더없는 조건이 된  
다.

마틴이 일곱 살 때 그는 장사판을  
벌였다. 시원한 단물(청량음료) 파는 일  
로(판매업으로) 알프레드와 크리스티안을  
동업하는 이(동업자)로, 아버지 마이클  
을 재정 후원하는 이(후원자)로 하여  
잔디밭에다 열자(개점을 하자) 손님이 핑  
장했다. 그런데 이익은 없었다. 주인  
들이 어찌나 그때그때(수시로) 먹어댔  
는지 말이다. 이것은 맨 처음(최초의)  
돈벌이었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이제까지  
있고 있었던 옳지 못한(불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그의 삶 속으로 스  
며 들어왔다.

어느 날 마틴과 아버지는 구두를  
사려고 애플랜타의 상점 거리로 갔  
다. ‘파이버 포인트’라는 가게에서  
사려(쇼핑을) 했다. 한참을 고르다가  
구두를 사려고 진열장(쇼윈도) 가까운

걸상(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백인 점  
원이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저쪽 뒷문에 있는 걸상(의자)에 가  
서 기다리면 당신들을 상대해 주겠  
소.”

백인 점원은 명령하는 말투(명령투)  
로 말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소?”

백인 점원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튼 여기서는 당신과 상대할  
수가 없소.”

점원은 무뎌뚱하게 화를 냈다.

“내 가르쳐 주겠는데, 나와 아들  
은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 구두를  
살 수도 있소. 또 우리는 당신네 구  
두를 사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그 가게를 나와 버렸다.  
의젓하게 거리를 걸으면서 아버지  
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이런 꼴(색)의 고르지 않은(불  
공평한) 일처리(처사)가 언제까지 갈지  
답답하단다. 하지만 나는(난) 결코 보  
기만(방관은) 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런 옳지 못한 일(불의)에 맞서서 싸울 테다.”

마틴은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맛보는 흑인이란 설윤(비애)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다. 아버지(의) 말은 애플저 침례교회와 킹 집(가정)에서는 곧 법이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흑인 차별의 그림자를 정복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 보였다.

마틴은 그 뒤(후)에도 몇 차례 아버지와 구두 가게를 갔으나(갔었으나) 언제나 앞문과 뒷문의 차이를 고집하며 구두를 사지 않았다. 결국 새 구두를 얻어 신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나는(난) 소년이(보이가) 아니고 킹 목사요

남부 지방의 백인들은 언제나 흑인을 부를 때 호칭 없이 첫 이름을 말하거나(부르거나), 이름을 모르면 그저 “소년(보이)”이라고만 했다(불렀다).

아버지는 언제나 백인들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

께, 사회공동터(공공장소)에서는 유달리 (특히) 예의를 갖춰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였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더니 마틴의 차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소년(보이)! 소년(보이)! 저 멈춤(정지) 신호는 왜 만들었는지 아나?”

“경찰관, 나는(난) 소년이(보이가) 아니고 킹 목사요.”

아버지가 말하면서 아들을 가리켰다.

“소년은(보이는) 여기 있군. 아들이, 이 경찰관이 너에게 뭘 물어보는구나. 우선 이름부터 가르쳐 주려무나.”

“네, 제 이름은 마틴 루터 킹 2세예요.”

그러자 경찰관은 어쩔 줄 몰라서(당황해서) 위반까지 떼는 것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저쪽으로 가버렸다.

마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라보라토리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진보의(진보적) 기풍이 드세어 전국(적)으로도 훌륭한(우수한) 학교

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이 학교에서 마틴은 B급의 뛰어난(우수) 학생이었다. 누나인 크리스틴과 함께 서로가 모자란(부족한) 과목을 가르쳐 주며 이 학교에서 2년을 보냈을 때, 어떤 사정 때문에 이 학교는 폐교가 되는 슬픈 운명(비운)을 맞아야 했다. 그래서 마틴은 부커 T. 워싱턴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마틴이 13살이(새가) 되자 외할머니인 윌리엄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마틴을 가장 사랑했다(사랑하셨었다). 할머니는 ‘침례교 여신도의 날’에 기념 연설을 하시다가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하였으나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때 마틴은 기념 행진이(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뒤늦게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식구(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싸인 것을 보고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일(할머니의 죽음)

은 마틴에게(마틴에게 있어) 사람(인간)의 죽음이 그의 평생(생애)에 감동과 슬픔을 준 첫 번째였다. 외할아버지는 그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할머니가 죽음에 닥쳐오고(임박해) 있었는데 기념 행진을(퍼레이드) 보러 고 길에 나가 있었던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괴로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틴은 2층으로 뛰어올라가 창문 밖으로 자기 몸을 날려 땅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한 할머니에 대한 죄를 씻으려는(숙죄의) 행동이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의 마틴이었다. 외마디(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간 식구(가족)들은 기절한 그를(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보살피느라(간호하느라) 더 바빴다.

외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자 식구(가족)들은 이 집에서 이사 가기 위해 새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때쯤 이웃엔 점점 어려운 사람이 늘어만 가고 있었다. 이 집은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자꾸 생각나게 하여 식구(가족)

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결국 이 집에서 세 구획쯤 떨어진 부리바드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새 집은 노란색 벽돌집으로 환경이 좋은 주택지에 자리(위치)해 있었다. 아버지의 꿈이 정말 이루어진 것이었다. 벽돌집을 가지게(소유하게) 된 것이 말이다.

마틴은 이 새 집에서 10대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담장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걱정해 본 일이 없는 것들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나오기도(등장하기도) 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는 먼저(우선)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이상이 없는지, 옷은 깨끗한지(청결한지), 구두는 잘 닦였는지(닦여졌는지) 검사를 하고서야 학교로 가는(향하는) 예민한 10대가 된 것이었다.

그의 동무(친구) 물리, 루스터, 캐시, 로버트, 잭, 존슨 들(동)은 마틴에게 ‘트위드(Tweed)’란 별명을 붙였다. 크리스틴의 동무(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 눈길(시선)을 끌려고 애썼으며(노력을 했으며), 여자에 대해 너무 알고

싶은 마음(여자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떠나지를 않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설에 대한 중대한(중)과 취미는 변함이 없었다. 웅변은 그가 가장(제일) 좋아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거울 앞에서 웅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택에 졸업하기 바로 앞(직전)에 열린 엠크스 웅변 대회에서 영광스러운(영광의) 우승을 하기도 했다. 그때 그의 웅변 내용은 많은 뜻을(의미를) 귀띔해(시사해) 주는 것으로 제목은 ‘흑인과 헌법’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춤잔치(댄스파티)가 열렸다. 그런데 한 무리(일단의) 나쁜 아이(불량아)들이 몰려와서 야유와 시비를 걸어와 마틴의 동무(친구)들은 참지 못하여 싸움이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점점 사나워졌고(난폭하게 되어) 폭력을 피할 수 없어(폭력이 불가피하게) 보였다. 이때 형편을(사태를) 멀리서 바라보던(관망하던) 마틴이 일어서서 나쁜(불량) 학생의 우두머리가 되는(리더적인) 한 동무(친구)를 말로 타일렀다(설득을 시켜나갔다). 처음엔 웃긴다는 얼

굴로(표정으로) 들던 그 동무(친구)는 시간이 갈수록 마틴의 거침없는(유창한) 설득력에 굴복하여 돌아갔다. 아이들은 이때부터 마틴의 실력을 더욱 인정하였다. 물론 그들은 백인 학생들로서 흑인 학생들의 춤잔치(댄스파티)를 망치려 했던 것이다.

마틴이 어느 웅변 대회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던 날 또다시 그 오피스 못한(불의의) 그림자, 차별의 그림자와 만나게 되었다. 그와 선생님 그리고 학교 동무(친구)들은 대회를 마치고 버스를 탔다. 버스가 막 떠나려 하는데 백인 승객 몇 명이 올라탔으나 빈자리가 없어 서 있었다. 그러자 백인 운전사가 앉아 있던 마틴 일행을 가리키며 서 있는 백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라고 명령을 했다.

마틴과 동무(친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인 운전사는 화를 벌컥 내며 어서 일어나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백인 운전사는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까지 부릴(행사할) 기세였다. 선생님은 그대로 두었

다가는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지 걱정스러웠다. 서 있는 백인 승객들은 운전사의 짓거리(행위)에 만족스러운 태도로 돌아가는 행편을(사태를) 보고만 있었다.

자기 반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지시했고, 마틴을 비롯한 동무(친구)들은 분노에 몸을 떨면서 일어섰다. 그리고 애틀랜타로 올 때까지 90분을 꼬박 통로에 서서 와야 했다. 마틴은 이렇게까지 분노를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이날 그의 가슴에는 백인에 대한 미운 마음(증오심)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버스 사건이 있는지 얼마 지난 뒤(후) 마틴은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시내로 나가 영화관을 찾았다. 영화관 관리인이 흑인은 뒷문으로 들어가 유색인종자리(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모를 참고 자리를(좌석들) 찾아 앉았더니, 지저분한 냄새와 엉터리 같은 걸상(의자) 따위(등)에 도저히 영화를 볼(감상할) 수가 없어 그냥 나와 버렸다. 마틴은 더 어수선했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집으로 오면서 다시는 그런 극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 유색인종자리(색)에 앉을 수 없다

1944년 마틴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여행할 겸 일할(아르바이트할) 겸 해서 북부 지방으로 담뱃잎 따는 농장을 찾았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북부로 갈(북부행) 기차에는 흑백인을 갈라놓지도 않았고 화장실도 함께(공동으로) 쓰게(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처음 생각하기에 마틴은 이 북부 지방이 남부처럼 흑인들을 움아매려는 억압과 멸시하려는 풍조가 없다고 느꼈다. 이것은 그에게 아주(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사람(인간)답게 살 수 있는 땅은 바로 북부라고 결론을 지었다.

마틴과 동무(친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뜨거운 햇빛(태양) 아래에서(아래) 담뱃잎을 따다. 주말이 되면 하트퍼드 시내로 나가 식당과 극장, 도서관, 그 밖(외) 여러 곳의 사회공동터(공

공장소)에서 거리까지(구에받지) 않고 들락거리는 자유를 한껏 느꼈다(만끽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 북부의 하트퍼드에도 애틀랜타처럼 인종 차별이 있음(존재함)을 깨달았다. 그 방법만 달랐을 뿐 이곳 북부 지방에서도 많은 제약이 아주 교묘한 표현으로 일어나고(실행되고) 있었다. 인종 차별의 어두운 그림자는 남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 북부 지방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그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여름이 지나가고 다시 학교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식당차를 지나서 장막(커튼)에 ‘유색인종자리(색)’라고 쓴 푼말이 붙은 곳에 앉아 무언가를 먹으려 했으나 그 차별의 푼말이 그의 운문(전신)을 짓누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마틴은 왜 자신에게 이런 미움(증오)의 그림자가 덮쳐 오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는 무엇인지, 왜 생긴 것인

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백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다(행위였다). 마틴에게 흑인을 열등하다는 관념을 심어주고, 그 기세를 백인들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보(심사)임을 알게 되자 그의 몸은 무서워서(공포의) 벌벌(전율로) 떨려 왔다. 이제부터 다가올 참아내야만 하는 모욕과 멸시가 무엇인지 모르니, 더욱 백인 공포증에 두려움이 앞섰으나 백인들도 흑인들을 두려워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심하게 억압받던 흑인들이 언제 어디서 옹지 못한 일(불의)에 맞설지(대항할지) 모른다는 것(놀린(알박) 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았다.

증오와 멸시의 그림자가 마틴을 어쩔 줄 모르게(당황하게) 만들고, 감정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살고 싶지 않고, 무엇이든 잘 안 될 것으로 보이게(비관에게까지 이르게) 했지만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겨났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하나둘 꺾어보자(경험하자)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또 마틴은 이런 증오와 멸시의 그

림자가 자신의 삶(인생)에 크나큰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그 그림자가 무서워 지금처럼 따라만 간다면 더욱 보잘것 없는 사람이 될 것이 뻔하리라고도 느꼈다.

마틴은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도덕을 지키는(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훌륭한 삶인지를 가르쳐(교육시켜) 왔음을 깊이 생각하며 어머니가 당부하시던 말씀을 떠올렸다(상기했다).

“너는 다른 어느 누구와도 다른것은 똑같이 좋은 사람이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마틴은 부모에게(부모로부터) 몸(육체적)으로나 마음(정신적)으로 질기게(강인하게) 살도록 배웠으며, 미움(증오)의 그림자가 아무리 옹지 못한 일(불의)로 덮어 씌워도 착한(선한) 사람이 해야 할(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면서 미워하는(증오의) 감정 또한 잊지 않도록 했다.

마틴은 이 시절부터 옹지 못함과(불의와) 평등하지 못함(불평등)은 자신의



평생을(생애를) 통해서 어떻게든 바로  
잡고(시정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겠다는 각오를 했다.


1944년 하트퍼드에서 돌아온 뒤  
(후) 마틴은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는 12번째에 드는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는데 언제나 상위권에 머  
무는 실력을 이어(유지해) 나갔다.

15세 되던 때부터 대학 시험을 미리  
준비하여(대비하여) 공부할 정도로  
그는 지식욕이 컸고(강했고), 그만큼  
감수성이 예민해 겁도 많았으나 옳  
지 못한 일(불의)에 과감히 싸우는(투쟁  
하는) 배짱도 아울러 갖추었다(겸비하였  
다). 더구나 대중에게 느껴 새길(감명을  
술) 만큼 훌륭히 연설할 줄도 알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중오와 멸시의  
그림자가 어떤 본바탕(성질의 것)인지를  
알고부터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  
야 하며, 삶을 어떻게 꾸려(영위해) 나  
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강한 마음  
을(의지를) 갖춘 투쟁하는(투쟁적인) 젊은  
이가 되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이오덕 100돌 기념 한마당

## 이오덕, 다시 꽃이 핀다



|      |                              |
|------|------------------------------|
| 어는 때 | 2025.11.14 금요일 15:00 ~ 18:00 |
| 어는 곳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시정역 12번 출구)     |

### 이오덕 100돌 기념 한마당

## 이오덕, 다시 꽃이 핀다.

때: 2025년 11월 14일 (금) 낮 3시 ~ 6시  
 곳: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별관 2동 2층)

이오덕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100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과 함께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함께하는 새 가지 방법>

첫째, 후원금으로 참여하기  
둘째, 글로 참여하기  
셋째, 그날 그자리에서 물소 참여하기

####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국민은행 762301-04-250797 (이문이문화재단)  
 1만 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글을 보내주세요>

글이나 만화나 어떤 어떤 글이나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nio239@hanmail.net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 주신 글은 모으고 읽어내 그날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공공관 대학은 일문 손전화 (010-3701-8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 알

\* 이번 한글날에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뽑은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에게 우리 모임 이대로 공동대표가 세종시 한글잔치를 참석해 그 상패를 전달했다.



\* 우리 모임을 만든 이오덕 선생님 태어나신 100돌이 되는 11월 14일에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어린이문화회 회원 100여명과 도종환 전 문체부장관, 주중식 선생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기림 행사를 할 예정이다.

\* 지난 10월 26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입구(들머리) 주차장에서 '제15회 신라화랑 귀산·추향 숭모제'가 열렸다. 귀산과 추향은 신라 진평왕 때 첫 화랑으로 원광법사한테 세속오계의 가르침을 받아 실천한 인물이다. 이 행사는 지금 남경주 문화연구회 회장 김영제 님이 내남면장으로 계실 때, 당시 공공근로 반장을 하였던 권순채 회원님(현 남경주문화연구회 부회장)과 의논하여 지내게 된 것이다. 올해도 김영제 님과 권순채 님이 힘을 합해 지내게 되었다.



## 립

## 니

## 다

### ※ 회계 보고 (10월 10일까지)

8 / 29 이정호 3천원

9 / 01 남원석 1만원

9 / 05 김현주 5만원

9 / 15 이재팔 1만원

9 / 25 임관혁 1만원

9 / 29 이정호 3천원

10 / 1 남원석 1만원

10 / 3 홍성진 2만원

회보 만드는 값은 1권에 1,700원씩(200부+우편)

142호 회보 만드는데 340,000원이 듭니다. 저번 호에 남은 돈 16,000원과 이번에 들어온 돈 116,000원을 합하면 132,000원입니다. 이번 회보를 만드는데 208,000원이 모자랐습니다.

### ※ '우리말 우리얼' 회비 보내실 곳

입금계좌 : 우체국 300731-01-001609

예 금 주 : 이정우 (이오덕학교)

누 리 집 : <http://cafe.daum.net/malel>

### \* 1권에 1,700원. 1년에 6부가 나옵니다 \*

회보 구독료 : 1년에 10,000원입니다.



▲ 권순채 회원님이 외솔 기념관에 기부한 '우리말 큰사전'과 '새로운 중학말본'.

우리말

우리열

제  
142  
호

2  
0  
2  
5  
년

10  
월  
호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